



농어장선

8

주체107(2018)
루게 제348호 월간

자력갱생 기치높이 다시한번 대고조로

좀 빠르고 힘차게

작사 김경기
작곡 리용호



1. 락 - 원의정 신 강 - 선의기백 은 나라에 차 넘 친 다



수령님의요구 당의요구라면 무엇이든 - 우리 한 다
(후렴)



에야 차대야차 에야 차라차 자 력갱생기치 높이



사 회주 의 건 설 에 서 다시한번 - 대고조로

2. 사람마다 뵈다 일터마다 뵈다
혁신으로 들끓는다
모든 예비 찾아 제손으로 찾아
새 기적을 떨쳐간다
(후렴)

3. 기대마다 돈다 만부하로 돈다
자립경제 은을 낸다
주체조국 위력 사회주의위력
제힘으로 떨쳐간다
(후렴)



농장원 박사

평양시 사동구역 오류남새전문협동농장에는 박사학위를 받은 윤원종농장원이 있다.

그는 근 40년간 키낮은 과일나무들을 육종하는 사업에 온넛과 정열을 쏟아부어 나라의 과수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본사기자 김성철

차례

새로운 출발선에 선 조미 3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집중	5
공장마다, 기계마다 생산의 동을 높다	6
일 화	
지식형의 기능공들로 키울 때	9
주체철생산으로 들끓는 기업소	10
개성고려인삼제품이 늘어난다	12
질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겠다	1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15

초소들에 새겨진 이름 17



- 공화국의 70년 -
인민의 꿈과 리상, 불패의 강국 18
전적지가 전하는 사연 19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흥기하전투 20
주체사상이 밝힌 민족문제 22
어린 싹의 자양분 23
농장원 박사 24
비약의 앞장에 선 청년들 26
9련승을 기록한 녀지송구팀 28
수영열기 차넘치는 교정 29
《우리 선생님》 31

재간동미들이 많은 유치원	32
흥미를 끄는 전시회	34
《마음에 꼭 듭니다》	36

고향소식

신양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	38
--------------------------	----

조국의 품에 안겨

한생의 보람	40
------------------	----

편지

그리운 이모님에게	42
---------------------	----



인상기

세인을 매혹시키는 불멸의 꽃	43
---------------------------	----

고국을 알게 하다	43
---------------------	----

고국방문

처음으로 찾아본 고국	44
-----------------------	----

44

민족의 향기

고유한 민족문자-훈민정음	46
-------------------------	----

북녘사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47
---------------------------	----

시대의 앞장에서	48
--------------------	----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음악 (2)	49
----------------------------	----

사화

력서의 발전에 기여한 강보	50
--------------------------	----

력사인물

장자연과 《시알야방성대곡》	51
--------------------------	----



야화

관속에 들어간 《대일본제국》	51
---------------------------	----

조국의 천면기념물 (19)	52
--------------------------	----

평안북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9)	54
-------------------------------	----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범죄	55
--------------------------	----

골수에 들어찬 재철야광	56
------------------------	----

54

상식

과일껍질의 약효	25
--------------------	----

중세기말 흰쌀의 명산지	26
------------------------	----

조선의 국견 풍산개	36
----------------------	----

조선속담 (나약성)	25
----------------------	----

유모아

20년 쓸수 있는 부채	41
------------------------	----

새로운 출발선에 선 조미

조선과 미국은 70여년간이나 침예한 적대관계, 대결관계를 가지고 역사적으로정을 밟아온 나라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장구한 세월 침예하게 대립되고 지속되어온 조미사이의 극단적인 적대관계는 봄날의 눈석이마냥 녹아내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온 세계가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수뇌분들의 상봉과 회담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의 쉐토사섬에서 최초로 진행된 것을 놓고 그렇게 말할수 있을것이다.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두 나라 인민의 리익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조미 두 나라 수뇌분들의 확고한 결단과 의지에 의하여 조미대결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상봉이고 회담이었다.

전세계가 하루하루 기다려온 세기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싱가포르의 곳곳에는 수천명의 내외신 기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되어 역사에 길이 남을 이날의 순간순간을 주시하고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와 조미 두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수뇌상봉과 회담을 진행하시기 위하여 현지시간으로 오전 8시 10분 숙소를 떠나시어 회담장으로 정해져있는 싱가포르 쉐토사섬의 카펠라호텔에 도착하시였다.

조미수뇌분들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미합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는 회담장에서 상봉하시고 첫 악수를 나누시였다.

조선반도가 둘로 갈라져 대립과 반목의 역사가 흘러온 70여년만에 처음으로 조미수뇌분들이 화해를 향한 첫발을 내디디었던것이다.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서 오늘 여기까지 와닿는 과정이 결코 험치는 않았다고 하시면서 과거의 역사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지만 그 모든것을 과감하게 짓밟고 이렇게 이 자리에 까지 왔으며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적대적인 조미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실천적문제들에 대한 솔직한 의견이 단독회담에서 나누어졌다.

이어 진행된 확대회담에서는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이며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측대표단과 이렇게 자리를 같이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적대적과거를 불문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이번 수뇌회담이 조미관계개선으로 이어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올해초부터 취하신 주동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조치에 의하여 불과 몇 개월전까지만 하여도 군사적충돌의 위험이 극도에 달하였던 조선반도와 지역에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가 도래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고있는 뿌리깊은 불신과 적대감으로부터 많은 문제가 산생되었다고 하시면서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께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량국이 서로에 대한 리해심을 가지고 적대시하지 않는다는것을 약속하며 이를 담보하는 법적, 제도적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집중

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미쌍방이 빠른 시일안에 이번 회담에서 토의된 문제들과 공동성명을 리행해나가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트럼프대통령이 제기한 미군유골 발굴 및 송환문제를 그 즉석에서 수락하시고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것은 지역과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는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의 말씀에 미합중국 대통령은 리해를 표시하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조미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안전담보를 제공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개선이 진척되는데 따라 대조선제재를 해제할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미국측이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조치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게 계속 다음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나갈수 있다는 립장을 밝히시였다.

조미수뇌분들께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을 준수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시였다.

이날 조미수뇌분들과 쌍방회담성원들을 위한 오찬이 있었다.

오찬이 끝난 후 조미수뇌분들께서는 함께 산책하시며 친교를 두터이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미합중국 도널드 제이. 트럼프대통령은 력사적인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에 서명하시였다.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께서는 오늘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공동성명

에 서명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세계는 중대한 변화를 목격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공동성명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갈것이며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이라고 밝히였다.

뿐만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것과 두 나라가 조선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것을 약속하였다.

공동성명에서 조미쌍방은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조미수뇌회담이 두 나라사이에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긴장상태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이라는데 대하여 인정하면서 공동성명의 조항들을 완전하고도 신속하게 리행하기로 하였다.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와 트럼프 대통령은 적대와 불신, 증오속에 살아온 두 나라가 불행한 과거를 덮어두고 서로에게 리익이 되는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며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 조미협력의 시대가 펼쳐지게 될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피력하시였다.

조미수뇌분들께서는 호상 편리한 시기에 평양과 미국을 방문하여주실것을 초청하였으며 서로 쾌히 수락하시였다.

전세계의 열광적인 지지와 환영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으로 하여 새로운 출발선에 선 조미쌍방이 이제 정해놓은 목표를 향하여 어떻게 전진하며 최종적으로 어떤 훌륭한 결실을 마련해놓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조미 두 나라 인민은 물론 세계의 기대와 관심은 참으로 크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4월에 소집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의 빛나는 승리를 선언하시고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인민의 지향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현실적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한데 기초하고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로선이다.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무엇보다 먼저 인민의 지향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들은 인민의 지향과 혁명발전의 합법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오늘뿐만아니라 먼 앞날을 내다보며 설계되고 작성된 것으로 하여 언제나 승리만을 안아왔다.

조선로동당은 력사적인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였다.

병진의 포성이 울린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5년간 세계를 놀래우는 충격적인 사변들이 다발적으로,련발적으로 일어나고 최강의 국가방위력이 마련되여 조선은 세계정치구도의 중심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으며 나라의 전반적경제가 상승궤도에 들어섰다.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이 밝힌 력사적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갖추기 위하여 허리띠를 조이며 간고분투하여온 조선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결속되었으며 후손만대의 존엄과 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이제 남은것은 경제문제이며 조선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것은 인민의 지향과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신속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다음으로 경제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킬수 있는 현실적조건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

고있다.

조선로동당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지닌 인민대중과 당이 키워낸 과학자, 기술자인영,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대한 확신과 필승의 신념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며 생산적양양과 비약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제시하였다. 당면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기간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할것을 호소하였다.

조선로동당이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데서 과학기술부문을 최우선시하고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할데 대하여 지적한것은 과학기술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사회주의의 운명을 걸고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육성한 든든한 과학기술진영이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의 승리를 담보하는 소중한 밑천이기때문이다. 당이 키워낸 과학자, 기술자대군이 과학기술전선의 주력군으로 튼튼히 준비되어있기에 경제건설대진군의 전망목표인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사회주의경제, 지식경제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능히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는것이다.

오늘 이미 마련된 조국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경제적봉쇄나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는 자체의 자원, 자체의 기술, 자체의 민족간부에 의하여 움직이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경제적잠재력을 가진 자립적인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로서 이것은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서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물질경제적요인이다.

참으로 조선로동당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고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지닌 인민대중과 당이 키워낸 과학자, 기술자인영이 있으며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자립경제의 토대가 있기에 새로운 전략적로선의 승리는 확정적인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문진성

공장마다, 기계마다 생산의 동음이 울다

얼마전 어느 한 식료품상점에서였다.

상점안은 자기 기호에 맞는 식료품을 사는 손님들로 붐비었다.

5살쯤 나보이는 사내애도 제법 자기가 먹고싶은것을 골라 어머니앞에 내밀었다.

《엄마, 나 이 <선홍> 빵을 사주세요.》

《며칠전에도 샀는데...》

《난 이 빵이 제일 맛있어요.》

국내산식료품들이 그득한 상

점에서 저저마다 상품을 고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기에 도 흐뭇하였다.

이 식료품상점만이 아니라 요즘은 그 어느 봉사단위를 가보아도 흥성이고있다.

백화점의 신발매대에 가면 《류원》신발이나 《매봉산》구두를 신어보며 《확실히 우리 신발이 좋거든.》 하고 말하는 손님들의 목소리를 쉼이 들

을수 있고 화장품매대에 가면 《봄향기》, 《은하수》, 《선

녀》 화장품들을 사며 미소를 짓

는 녀성들을 볼수 있다.

어찌 이뿐이랴.

옷매대에는 《은하》, 《대성》상표의 세련되고 우아한 옷들이, 이불매대에는 《만복》상표를 단 이불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으며 학용품매대에서는 《민들레》 학습장이며 《소나무》책가방이 학생들과

학부형들을 반겨맞고있다.

식료품, 화장품, 신발, 피복 제품은 물론이고 전자제품, 체

평양326전선공장에서의 생산적양양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대상설비생산을 다그친다.

육기자재를 비롯한 국내산상품들이 끊임없이 늘어나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있으니 자연 생산정상화의 동음높은 공장, 기업소들의 모습이 안겨온다.

평양이나 지방이나 할것없이 어디서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을 위해 공장, 기업소들에서 만가동, 만부하로 기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생산 2.5배 장성,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새형의 열뿔프개 발사업 힘있게 추진, 남흥청년 화학련합기업소에서 주체비료 생산에서 련일 혁신, 전력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는 화력, 수력발전소들과 탄광들에서의 석탄증산성과들...

뿐만아니라 김정숙평양제사 공장, 류원신발공장과 원산구두공장, 평양화장품공장, 민들레학습장공장, 천지윤활유공장을 비롯한 각지의 공장들에서 생산장성소식들이 련이어 전해지고있으며 만경대경흥식료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등 곳곳에 일떠선 식료공장들에서도 만부하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있다.

하루하루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공장, 기업소들과 3년분, 4년분과제를 앞당겨 완수하는 혁신자들도 늘어나고있다.

평양가방공장 역시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공장들중의 하나이다.

주체105(2016)년 4월에 창립된 공장의 력사는 길지 않다. 하지만 공장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생산성이 높아지고 가방의 질적지표개선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새로 일떠선지 얼마 안되지만 종업원들의 평균 기능급수가 두급이상 높아진것은 공장의 발전속도를 쉽게 가늠할수 있게 한다.

공장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가방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뚜렷이 세우고 작업 공정별전문화를 실현하여 로동 생산능률을 높이고 제품의 질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고있다. 그러다나니 어느 작업반에서나 과학기술을 확고히 알세우며 일해나가고있다.

오늘 공장에서는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에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
각이한 용도의 수지판들을 생산

이르는 각종 남녀학생용가방들을 마음먹은대로 척척 만들어 내고있다.

《오늘 우리 공장이 이룩하고 있는 성과는 친히 도안가가 되시여 수많은 가방도안들을 보아주시고 학생들의 취미와 기호, 미감, 나이와 신체적특성에 맞게 질 좋은 가방들을 생산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원수님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을 해도 힘든줄을 모르겠습니다.》라고 감격에 겨워 김춘심직장장은 말하였다.

이런 이야기는 평양무궤도전차공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금성뜨락뜨르공장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그 어느 단위에서나 들을수 있었다.

예로부터 훌륭한 자식의 뒤에

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듯이 조국에서 이룩되고있는 이 자랑찬 성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원산구두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신발생산의 량과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조치를 취해주시고 개선되었을 때에는 또다시 나오시여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게 그리고 계절에 따르는

평양가방공장에서의 학생용가방생산



신발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구두의 질을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그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신 그이이시다.

대소한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류원신발공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공장을 우리나라 신발공업부문의 전형단위, 표준공장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개선공사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그러시고는 공장이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신발, 자기 단위를 상징하고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신발을 짱짱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으로 전변되었을 때에는 너무도 기쁘시여 또다시 공장을 찾으시고 높이 올리고있는 생산증산의 동음소리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가는 천만군민의 힘찬 진군가로 들린다고

일화

지식형의 기능공들로 키울 때

주체107(2018)년 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원수님께서 새로 개건된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이날 가공직장, 전동기직장, 전차조립직장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개건현대화정형과 생산실태를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통합생산체계를 훌륭히 구축한데 대해서와 여러가지 현대적인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하고 새로운 설비들도 보충한것을 비롯하여 주체화비용을 92%이상 보장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무궤도전차조립공정을 원격조종화하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하였으며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종전보다 로력과 전력을 절약할수 있게 한 것도 자랑할만 한 성과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종특성이 좋은 전동기를 새롭게 설계제작하여 무궤도전차의 견인력을 1. 2배로 높이고 자동차

단기를 비롯한 각종 부속품들을 자체로 만들어 생산에 도입한데 대해서도 평가의 말씀을 주시였다.

이윽고 과학기술보급실과 도안창작실에 들리신 그이께서는 이곳을 훌륭히 꾸려놓고 잘 운영하였기에 종업원들이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지식형의 기능공들로 준비할수 있었으며 현대적이며 문화성이 보장된 무궤도전차들에 대한 도안창작도 잘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새겨들으며 일군들은 모든 공장, 기업소마다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잘해나갈 때 종업원들을 지식형의 기능공들로 키울수 있으며 그렇게 될 때 자기 단위의 그 어떤 과학기술적문제도 자체의 힘으로 능히 해결할수 있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 * *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생산장성의 불씨를 심어주시고 불길을 지펴주시고도 이룩되는 모든 성과를 고스란히 로동계급에게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런분이시기에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밝혀주시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당면목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정상화

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신것 아니랴.

오늘 조국땅에는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의 결정관철을 위해 들끓는 속에 어디서나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더 기세차게, 더 우렁차게 울려퍼지고 우리의 상표를 단 제품들이 쏟아져나와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있다.

하기에 우리 조국을 방문하였던 타이 주체사상연구조직 위

원장은 조선의 현실을 목격하고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모든 성과들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원수님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격찬하였다.

승리의 진군가로 높이 울려퍼지는 생산정상화의 동음과 더불어 이 땅에는 인민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영원할것이며 사회주의강국의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게 될것이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주체철생산으로 들끓는 기업소

조국에서는 국내산원료, 연료에 의거하여 생산된 철을 가리켜 주체철이라고 부른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용광로 직장에서 산소열법용광로를 세우고 주체철을 생산해내기 시작한것은 여러해전부터였다.

용광로직장 용해공들의 말에 의하면 금속공업부문에서 주체적인 제철, 제강기술을 더욱 완성하고 철생산능력을 확장하며 금속재료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경제의 철강재수요를 충족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요즘 주체철생산에서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드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직장장 김경철, 로장 리니원

은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련계 밑에 산소열법용광로의 운영을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나가는 한편 일부 불합리한 개소들을 개조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고있다.

그들은 산소우구직경을 개조하여 산소분무의 압력을 높이고 능력이 큰 배풍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새로 제작설치하는 등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제진장치를 개조할 새로운 목표를 내세우고 기술적 및 물질적토대를 원만히 갖추어나가고있다.

직장에서는 다음교대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일별, 교대별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한편 산소열법

용광로에 합리적인 원료배합비와 용해조작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용해시간을 줄이고 차지당 쇠물생산을 늘여나가고 있다.

보장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주체철증산에 이바지할 결의의드높이 산소열법용광로의 만가동을 보장하는데 크게 힘쓰고있다.

주체철생산의 선형공정을 담당한 산소분리기2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산소열법용광로의 숨결을 지켜간다는 자각을 안고 설비점검 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질좋은 산소를 용광로에 보내주고있다.

공무수리직장을 비롯한 그밖의 단위들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주체철생산을 함께 책임진 립장에서 로운영과 보수작업에 필요한 기술적문제를 해결하고 설비와 부속품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산소열법용광로의 동음이 높이 울리도록 하고있다.

용광로직장 직장장 김경철은 말하였다.

《우리 주체철생산자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8년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공화국창건 70돐을 더 높은 철강재증산성파로 맞이해 나가겠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추출 및 농축과정



생산되어 나오는 제품들



인삼가공제품에 대한 포장



생산조종실

제품가공과 관련한 기술학습진행



개성고려인삼제품이 늘어난다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조국땅에서는 사람들의 건강에 매우 좋은 귀한 약초들이 많이 자라고있다.

그가운데서도 개성의 고려인삼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그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있다.

개성시 송악동에 위치한 개성고려인삼가공공장에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삼제품의 가지수와 함께 그 생산량을 늘이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 연구사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홍삼 1차가공중합자동조종반, 인삼추출기 등을 설계제작하고 여러 가공공정들을 자동화, 흐름선화함으로써 많은 로력과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제품의

생산성과 실용성을 높이고있다.

공장종업원들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비약하는 시대적분위기에 맞게 자기 맡은 기대에 정통하고 탐구를 거듭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도입하여 생산을 활성화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있다.

물질기술적토대를 그쫘히 갖추어놓은 성과에 기초하여 공장에서는 새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미 개성고려홍삼가루, 개성고려인삼절편, 개성고려인삼탕, 경육고, 인삼엑스, 인삼차, 홍삼생강차를 비롯하여 인삼가공제품들의 가지수

를 늘인데 만족하지 않고 최근에는 사람들이 그 어디에서나 손쉽게 먹을수 있는 인삼단물과 홍삼알약 등을 만들어 내놓아 사람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제약작업반 반장 오명희는 말하였다.

《국내외적으로 인기가 높은 개성고려인삼제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장안의 모든 일군들과 노동자, 연구사들은 새 제품개발사업에서 네일내일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주인다운 립장에 서고 있다.》

공장에서는 모든 인삼제품들을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명제품, 명상품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규격화사업과 품질관리사업도 적극 따르세우고있다.

개성고려인삼가공공장의 종업원들이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생산한 개성고려인삼제품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이 앞으로도 조국의 자랑스러운 자랑이 될것이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질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겠다

우리 평양양말공장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는 공장이다.

내가 이 공장의 지배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지는 1년도 안된다.

지난 기간 어느 한 피복공장에서 직장장으로 일하던 내가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서고보니 정말 생각이 깊어진다.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현대적인 양말생산기지를 일떠세워주시고 령도의 자욱을 새기신 그 업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현지도하여주신 그 업적을 양말생산성파로 빛내여갈 결의가 날이 갈수록 이 가슴속에서 굳어만진다.

오늘 우리 양말공장의 모든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올해에 기어이 제품의 질체고와 원료, 자재의 주체화를 실현해갈 높은 목표를 세웠다.

양말제품의 질이 높을가 낮은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제품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가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하는데서 표현되게 된다.

구매자들이 저저마다 즐겨찾는 제품들은 레외없이 우리 인민의 기호와 미감에 맞게 생산된 제품들이다. 인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제품은 아무리 많이 생산해서 상점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아도 소용이 없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다.

공장에서는 300여가지의 새 제품을 개발한 지난해의 성과에 토대하여 한달에 두번씩 새 제품품평회를 가지고 품평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술자, 로동자들에 대한 평가사업을 따라 세우고있다. 우리는 양말제품을 인수받기 위해 오는 상업일



군들에게 우수한 새 제품본들을 보여주어 그들이 직접 어느 제품을 언제까지 얼마나 생산해달라는 예약도 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니 공장종업원들속에서는 자기들이 생산하는 양말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창의창발성이 최대로 발휘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군들은 공장의 기술자협의회를 자주 열고 기술자들에게 설비, 원료, 자재의 주체화를 중요정책적문제로 틀어쥐고 힘있게 내밀데 대한 당(조선로동당)의 높은 뜻을 새겨주며 그 실현을 위한 작전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공장에서는 국내산원료를 리용한 새 제품개발과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을 내놓

기 위한 기술과제, 중요부속품들과 자재의 국산화과제,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실현과제들을 통이 크게 제기하고 기술자 한명당 1건씩 맡아 수행하도록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였다.

그에 따라 기술자들과 기능공들로 맡겨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추진조를 못고 일별, 주별로 총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보급실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기술자, 기능공들이 양말생산의 세계적발전추세자료와 국내에서의 개발실태들을 열람하면서 연구사업을 심도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남자양말직장에서는 국내산 원료로 제직기에서 안전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도록 기계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따라세웠으며 공장의 기술일군들은 서로의 지혜를 모아 국내산원료를 리용하는 확대품종개발과 함께 그에 따르는 염색기술준비를 완성하였고 준비직장 로동자들은 기술지표대로 염색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여 우리의 원료로 양말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우리는 앞으로도 원료, 자재의 주체화실현과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 세계적추세에 맞는 다양한 색깔과 문양의 질 좋은 양말을 생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바치겠다.

평양양말공장 지배인 조금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한때 우리 나라의 독립운동자들은 《리상촌》건설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애를 썼다.

《리상촌》이라고 하면 누구나 착취와 압박이 없고 불평등이 없으며 만사람이 다같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계(마을)를 련상할것이다. 오랜 옛적부터 우리 민족은 이런 유토피아와 같은 세계를 꿈꾸어왔다.

민족주의자들이 제창한 《리상촌》건설에 대한 주장은 만민이 유족하고 화목하고 평화롭고 오붓하게 살아가려는 조상들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리상촌》건설을 주장하고 그것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대표적인물은 안창호였다. 《한일합병》조약이 공포된 직후 중국 청도에서는 안창호, 리동휘, 신채호, 류동열 등이 모여 회담을 벌리었는데 여기에서 안창호가 내놓은것이 바로 《리상촌》건설에 대한 방안이었다. 심중한 논의끝에 독립운동지도자들은 미국사람들이 경영하던 대동실업회사(밀산현)의 땅을 사들여 그것을 개간하고 사관학교도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기로 하였다. 이런 《리상촌》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자금도 뽑고 인재도 키우면서 독립운동을 위한 물질, 인적, 재정적기초를 마련하자는것이였다.

이 계획이 류산된 후에도 안창호는 여러해동안 《리상촌》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적당한 후보지를 물색하기 위해 고난에 찬 노력을 하여왔다. 그가 《리상촌》건설에 이처럼 큰 심혈을 기울인것은 《실력양성론》을 물질적으로 뒤받침할수 있는 독립운동의 기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데 있었다.

《리상촌》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당시 독립운동에서 하나의 풍조로 되어있었던것 같다. 황무지를 개척하여 농장을 만들고 무관학교의 설립으로 실력양성의 소박한 꿈을 실현하려고 했

던 민족주의자들이 적지 않았다.

료하농촌도 그런 풍조를 타고 생겨났다.

료하농촌을 처음으로 개척한것은 남만지방에서 활동하던 민족주의자들이였다. 송석담, 변대우(변창근), 김해산, 광상하, 문상목을 비롯한 남만의 민족주의세력중 일부가 서부방향으로 방황하다가 료하기슭에서 보집을 풀었다. 그들은 조선의 리상촌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300여호의 동포들을 이주시킨 다음 외부세계와 담을 쌓고 별세상을 꾸리기 시작했다. 우에서 련거한 다섯세대가 먼저 살았다고 하여 그들이 정착한 고장에 오가자라는 지명을 달았다.

그 당시 길림의 문광중학교에 다니는 동무들 가운데 고유수와 오가자지방에서 온 청년들이 몇명 있었는데 그들이 오가자가 좋다는 말을 많이 하였다.

그래서 나는 오가자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으며 이 마을을 혁명촌으로 개조할 결심까지 품게 되었다.

내가 동만에서 오가자로 간것은 1930년 10월이였다. 나는 원래 동만에서 무장투쟁준비와 관련된 큰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정세로 보아 그곳이 회의장소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장소를 오가자로 변경시키였다. 몇달 동안 오가자에 눌러앉아 회의준비를 하면서 곁하여 마을의 혁명화도 다그치자고 결심하였다. 가보니 듣던대로 풍속도 좋고 인심도 좋았다.

이 고장에서는 바람이 심하여 지붕에 기와를 올리지 못하고 진흙을 발랐다. 염분이 섞인 진흙을 바르면 비가 새지 않았다. 오가자사람들은 담장도 흙으로 규모있게 쌓았다. 진흙을 파서 메로 두드리다가 돌처럼 굳어졌을 때 일정한 규격으로 잘라가지고 담장을 쌓았는데 그렇게 만들어낸 토벽은 총알도 뚫지 못한다고 그 고장 농민들이 장담하였다.

오가자를 개척한 유지들은 자기들의 리념이

나 주의주장과 맞지 않는 이색적인 사상조류가 마을에 들어오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농민들과 합심하여 진뿔을 논으로 개간하고 마을에 학교도 세웠다. 농우회니, 청년회니, 소년학우회니 하는 대중조직도 내오고 촌공회라고 부르는 자치기관도 내왔다. 일본이 《한일합병》을 선포한 8월 29일이 오면 마을의 주민들을 모여놓고 《국치일가》를 부르게 하였다. 일본군경들과 중국반동군벌의 마수가 잘 미치지 못하는 자기네 고장을 오가자사람들이 《천국》으로 여기게 된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가자의 주민구성에서 대다수를 이루는것은 평안도사람들과 경상도사람들이었다. 경상도사람들은 남만청총계통의 엠엘파의 영향밑에 있었고 평안도사람들은 주로 정의부의 영향을 받고있었다.

나는 평안도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오가자에 가서도 카툰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상도사람들의 집에 자주 머물러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상도사람들이 신경을 쓸수 있었다.

우리는 카툰에 있을 때 조선혁명군 대원들을 공작원으로 몇명 파견하였지만 그들이 오가자에 와서 크게 맥을 추지 못하였다. 고집이 세고 지반도 확고한 마을의 유지들을 설복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여기서 내가 동무들의 소개로 그해 겨울을 보냈다. 한두주일도 아니고 몇달동안이나 한고장에 그처럼 오래 붙박혀있은것은 우리가 오가자를 그만큼 중시하였기때문이었다.

우리는 오가자를 중부만주일대에서 민족주의세력의 마지막보루로 보았다. 여기에서 사업을 잘하면 오가자를 농촌혁명의 본보기로 만들수 있었으며 그 경험에 토대하여 만주전역과 북부국경일대에서 농촌마을들을 우리의 영향하에 둘수 있었다.

우리가 혁명의 기본동력을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로 보고 그중에서도 특히 농민의 혁명화에 많은 힘을 기울인것은 우리 나라 계급구성에서 농민이 차지하는 위치와 관련된다. 농민은 우리 나라 인구의 80%이상을 차지하고있

었다. 간도지방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인구의 80%이상이 조선사람이라면 그중 90%정도는 농민이었다. 군벌들의 박해와 지주, 고리대금업자들에 의한 가혹한 수탈로 하여 그들은 최악의 빈궁과 무권리속에서 살고있었으며 지대를 통한 착취와 함께 노비라든가 노예들에게 가해지는것과 같은 경제외적착취에 의해 사정없이 혹사당하였다.

국내에 사는 농민들의 처지도 이와 비슷하였다. 이것은 농민대중이야말로 로동계급과 더불어 혁명에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는 계급이며 우리 혁명에서는 농민이 로동자와 같이 주력군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농촌의 혁명화는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하는 사업에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리였다.

공작원들의 활동으로 청년들속에서 우리의 지향을 따르려는 열망이 급속히 높아지게 되자 오가자의 유지들은 대통을 휘두르며 요새 젊은 것들의 머리에 땀물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료하벌에 사회주의를 끌어들이는 놈쟁이들은 빼가성하지 못할줄 알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간도는 공산당때문에 다 망했다는데 그 미친 바람이 오가자에까지 들어오면 료하농촌도 무사치 못할것이라고 말하는 유지들도 있었다.

서빨리 서두르다가는 유지들의 대통에 얻어맞을수 있었다.

청년들속에서는 동요가 일어났다. 공산주의 행진곡에 발을 맞추어야겠는데 령감들의 눈에 날것 같아서 망설이었다. 주대가 좀 있다는 청년들은 유지들과 엇서나갔다.

나는 공작원들의 보고를 듣고 오가자를 혁명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무엇보다도 유지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유지들의 사고방식을 돌려세우지 않고서는 오가자를 《리상촌》건설의 허황한 꿈에서 건져낼수 없었으며 료하농촌을 중부만주의 본보기농촌으로 만들어보려는 우리의 구상도 실현할수 없었다. 유지들만 돌려세우면 나머지사람들은 우리가 할타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초소들에 새겨진 이름

언제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 헤쳐오신 전선길의 로정을 추억깊이 더듬어보시며 여러 초소의 이름들을 불러보신적이 있었다.

《다박솔초소》, 《감나무중대》, 《들꽃중대》, 《부자중대》, 《돌배나무대대》...

《다박솔초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일 잊지 못해 하시던 곳이다. 그것은 공화국이 가장 어려움을 겪던 지난 세기 90년대에 조국의 군대와 인민을 일떠세워야 하는 첫 출발선에 서신 그이에게 있어서 이 초소가 힘이 되고 마음의 기둥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하기에 오늘도 이 초소는 시련의 그 나날에 조국이 이룩한 승리와 위훈의 진정한 고향으로, 조국의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대를 이어 가야 할 투쟁의 길에서 혁명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는 신념의 고향으로 깊이 간직되어있다.

여기에서 길길이 뻗어나간 수천수만갈래의 령이며 산발들마다에 조국수호의 기치를 높이 드신 그이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그 험난한 전선길은 그대로 그이께서 병사들을 위해 바치신 사랑의 전설로 수놓아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감나무중대》를 찾으신것은 《다박솔초소》를 내리신 그때로부터 한달이 지나서였다. 류다르게 감나무가 많은 바다가초소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대포를 다루며 조국의 바다를 지켜가는 녀성군인들의 수고를 대견히 여기시며 그들을 위해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

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그들을 최상급의 휴양소에도 불러주시고 그들을 위해 크림도 보내주시었으며 그후에는 녀성군인들을 위한 화장품공장도 건설하도록 하시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때였지만 그들에게 생활필수품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하시었고 녀성군인들이 초소에서 처녀시절을 보람있게 보내도록 은정깊은 조치들도 끊임없이 취해주시었다.

그이의 뜨거운 사랑은 《들꽃중대》의 녀병사들에게도 뜨겁게 어려있다.

그이께서 이곳 중대녀병사들을 알게 되신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평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녀성중대병사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뜻밖에 잃은 그때부터 상실의 아픔을 이길수 없어 심산속을 헤치며 마련한 들꽃들을 안고 온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어 초소를 떠날수 없는 몸이어서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있는 이 꽃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드러달라고 평양으로 가는 차들마다에 실어보냈던 기특하기 그지없는 조국의 딸들이었다.

그때로부터 10년이 되어오던 어느날 이곳 초소를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녀성중대는 미담도 많고 일화도 많은 중대라고, 그전에는 《감나무중대》가 나와 세상에 크게 소문을 냈는데 오늘은 또 하나의 유명한 중대가 나와 전군이 다 알게 되었다고 기쁨에 넘쳐 교시하시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모습과 소행이 예술영화의 화폭에 담겨지게 되었으며 이 초소를 지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녀병사들의 손을 잡고 감동의 인사를 전하곤 하였다.

간고했던 전선길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에 깊이 자리잡은 《부자중대》와 《돌배나무대대》도 있다.

《부자중대》는 말그대로 싸움준비에서만이 아니라 군인생활에서 지난 시기에는 생각도 못했던 천지개벽을 이룩한 중대이며 《돌배나무대대》는 조국의 푸른 숲은 자기들이 지키고있는 초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병영주변과 산들에 돌배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나무들로 무성한 숲을 이루게 한 대대였다.

가장 힘겨웠던 고난의 나날에 이악한 노력으로 먹는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 《잘사는 중대》, 《부자중대》로 전군에 명성을 떨친 이 중대와 열렬한 조국애로 푸른 숲을 가꾸어가는 《돌배나무대대》의 모습은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정말 사랑이 가시는 중대였고 대대였다.

하기에 이곳 초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부자중대》, 《돌배나무대대》라고 다정히 불러주시며 온갖 정을 다 부어주시었다.

참으로 군인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그들이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도 크게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량없는 사랑속에 전선길우에서는 이와 같은 사랑의 전설, 사랑의 이야기가 끝없이 펼쳐졌다.

본사기자

인민의 꿈과 이상, 불패의 강국

이 땅 그 어디에서나 노래 《세상에 부림없어라》가 울리고있다.

은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의 불밝은 창가에서도, 천지개벽된 나라의 최북단 라선과 함북도 북부지구에서도 끝없이 울려오고있다.

창조와 건설의 전성기가 펼쳐져 해마다 새 거리들이 일떠서고 아침과 저녁이 다른 놀라운 전변의 력사가 수놓아지고있으며 인민의 세기적인 꿈과 이상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는 우리 조국,

오늘의 경이적인 사변들은 공화국의 70년력사에 자랑스러운 한페이지를 수놓아가고있다.

7년전 12월, 온 민족이 하늘처럼 우리르며 따르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천만뜻밖에 잃고 비분에 몸부림치는 군대와 인민을 한품에 안아 일으켜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앞에서 하신 첫 연설에서 만만시련을 이겨내며 당(조선로동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실 자신의 결심을 뜨겁게 피력하시였다.

인민의 꿈과 이상은 전쟁의 위협이 영원히 가셔진 푸른 하늘아래서 자주적존엄을 빛내이며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행복하게 살려는것이였다.

인민의 꿈과 이상이 실현된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주시려 그이께서는 모든 사색과 실천활동을 강국건설에 다

바치시였다.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룡성변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데는 천하제일강국은 결코 돈이나 억대의 재부가 가져다주는것이 아니였다.

진정으로 행복한 인민은 자기를 지킬수 있는 힘을 가진 인민,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강국의 인민이다.

그이께서는 조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국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내놓으시였다.

그 누구보다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인민의 소중한 꿈과 이상을 꽃피워주시실 확고한 의지를 지니신분이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핵무력강화의 길을 끝없이 걸으시여 마침내는 우리 인민을 국가핵무력위업을 완성한 위대한 강국의 인민으로 되게 하시였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인민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인민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간주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공장들을 돌아보시며 1년 365일 이런 날들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그리도 만족해하시고 만선의 배고동소리 울리는 포구에 넘쳐나는 물고기사태를 바라보시면서도 기뻐할 인민들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 때로는 비내리는 진창길을 걸으시고 때로는 모래바람을 손으로 막으시며 설게도 면도 그려주시면서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들을 하나하나 일떠세워주시였다.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마식령스키장,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언제인가 룡라곰등어관을 참관한 한 외국인은 《조선에서 근로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고급한 문명의 향유자로 되고있으니 정말 놀랍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오직 조선밖에 없다.》고 찬탄하였다.

지난 4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시고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것이 당의 전략적로선이라고 천명하시였다.

하기에 조국인민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를 통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승승장구할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의 찬란한 래일을 그려보았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군대와 인민은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갈것이며 그 길에서 인민의 꿈과 이상이 실현될 사회주의강국의 그날은 하루하루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연옥

전적지가 전하는 사연

함경남도 신흥군, 부전군, 장진군을 포괄하는 넓은 지역에 신흥지구 혁명전적지가 자리잡고있다.

주체26(1937)년 여름에 창설된 신흥지구 비밀근거지는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존재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전민항쟁을 벌리는데서 활동거점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큰 산줄기들에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활동기지, 작전기지, 후방기지인 동시에 전민항쟁과 반일대중투쟁에 대한 지도를 감당할 지령점으로 될수 있는 비밀근거지들을 수많이 꾸리도록 하시였다.

소나무, 잣나무, 참나무들이 울창한 수림을 이룬 높고 험한 산밭들로 둘러싸인 신흥지구는 천연요새화된 지대이다. 당시 이곳에는 화전민과 탄광, 광산, 철도부설공사와 수력발전소건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살고있었는데 그들은 반일감정이 매우 높았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자연지리적으로, 사회계급적으로 비밀근거지창설에 유리한 조건이 갖추어진 곳인 이 일대의 넓은 지역에 많은 비밀밀영들을 건설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민항쟁준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주체26(1937)년 9월 신흥지구로 진출하시였다.

일제의 폭압망이 촘촘히 뒤덮여있고 맹수들이 울부짖는 천고의 밀림을 헤치

뒤덕봉밀영사령부



시며 그이께서 국내깊이로 나오신다는것은 당시로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다.

주체26(1937)년 9월 신흥지구로 진출하신 그이께서는 소부대의 활동정형을 료해하시고 부전령산줄기의 유리한 지역에 더 많은 밀영을 건설하여 근거지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과업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신흥탄광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공작원들과 혁명조직들의 사업정형을 료해하신 후 삼발산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 및 지하혁명조직책임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하시였다.

삼발산회의를 계기로 부전, 흥남, 원산을 비롯한 국내 각지에 당 및 조국광복회조직들이 확대강화되고 반군사조직인 로동자돌격대와 생산유격대들이 조직되었으며 일제의 군수생산을 지연파탄시키고 산업시설을 파괴하며 군량미조달을 반대하는 등 각종 형태의 반일투쟁이 강화되였다.

그 이듬해 8월 또다시 신흥지구 비밀근거지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 및 소부대, 소조,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우리 혁명에서 자주적립장을 철저히 고수하고 조국해방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길데 대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옥련산회의장소



흥기대전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솔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1940년 봄 송화강상류의 무송현 백석탄을 떠나 두만강연안으로 향하였다.

이 시기 적들의 발악은 더욱 심하여갔다.

당시 반쏘전쟁준비에 날뛰던 일제침략자들은 자기들의 배후를 위협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소멸》하려고 20여만명의 대병력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를 찾아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이러한 시기에 국경연안으로 진출한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모든 곤난을 극복하면서 이해 3월에 대담하게 대마록구의 적을 습격하였다.

국경연선이며 《토벌작전》의 중심지인 대마록구를 습격당한 적들은 눈이 뒤집혀서 조

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추격하였다. 주력부대는 대마록구의 적을 소탕한 후 화라즈쪽으로 다시 행군해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도중에 부대의 행방을 감추기 위하여 7련대의 한개 분대성원들에게 군수물자를 지고온 로동자들을 데리고 다시 대마록구쪽으로 가면서 눈우에 발자국을 내도록 지시하시였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 주력부대는 그 발자국과는 반대방향인 화라즈에서 약 5리되는 지점에 들어가 전투승리를 축하하면서 군정학습을 진행하였다.

여기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 전체 성원이 모였었다.

적들은 안도일대의 《토벌대》까지 동원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해냈으나 행차뒤나발이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충분히 휴식한 후 다시 두만강연안인 창평방향으로 진출

하게 되었다. 그것은 1940년 3월 하순이었다.

주력부대는 적들이 발자국을 알아볼수 없게 하기 위하여 길우에 가로놓여있는 진대나무를 타고 길을 넘은 후 몇명의 대원들이 뒤에 떨어져서 눈우에 난 발자국을 메웠다. 이때 그들은 농민 두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농민들에게서 화라즈곶짜기에 적《토벌대》170여명이 있으며 그아래에는 위만군 300여명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적들이 주변정형을 알기 위해 그 농민들을 보냈던것이다.

적들은 자기들이 보낸 농민들이 없어지자 그들을 찾다가 주력부대의 행처를 알아내고 추격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추격해오는 적들을 대마록구하(흥기하지류)곶에서 소멸하기로 결심하시였다. 유격대는 대마록구하곶에 도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2(1943)년 2월에도 이곳에 나오시여 두무봉에서 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과 그에 배합한 전인민적봉기, 배후련합작전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때 대한 3대로선을 내놓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그 나날 그이께서는 로동계급이 많이 모여있는 함흥, 흥남지구에서 전민항쟁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언제인가는 작업복차림으로 탄광로동자들과 동발나무무지에 앉으시여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였고 마을로인들과 담화도 하시였으며

지하공작원들과 소부대성원들을 만나시여 그들의 사업도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 함흥륙군병원에까지 나타나시였다가 바람처럼 사라지셨다는 이야기, 함흥의 어느 한 리밭소에서 리밭까지 하고 가셨다는 전설은 바로 이 지구에로의 진출과 관련되어있다.

많은 사연을 안고있는 신흥지구 혁명전적지의 사령부밀영자리, 백역산밀영자리를 비롯한 밀영들과 천막자리, 귀틀집자리, 우등불자리, 구호문헌 등은 오늘도 조국해방위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전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다음날인 3월 25일 적들이 추격해올것을 예견하고 부대들은 대마록구하 물곶을 따라 하류쪽으로 내려갔다.

그이께서는 적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부대가 곶짜기를 따라 한참 내려가다가 좌우측의 산릉선을 타고 다시 상류쪽으로 올라와 유리한 지점에 매복하도록 하시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적들에게 유격대가 이곳을 통과한듯이 보이게 하자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소마록구뒤산에 지휘처를 정하시고 여기에 기관총대와 경위중대를 배치하시였고 그 맞은편 고지아래 언덕에는 7련대, 8련대들을 배치하시였다. 그러므로 적들이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독안에 든 쥐의 신세가 될것이였다.

주력부대들은 3~4명씩 한조가 되어 25~30m의 간격을 두고 배치되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온종일 기다려도 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후 6시경에야 적이 나타났다는 신호가 왔다.

모두가 긴장해서 대마록구하 물곶만 내려다보았다.

그때 화라즈쪽으로부터 사복을 입은 여섯명의 적척후병들이 오고있었다. 척후병들이 지나가자 예측한대로 적《토벌대》의 대렬이 뒤따라오고있었다.

적들은 발자국을 보고 유격대가 지나간줄로만 알았던것이다.

드디어 적들은 매복련안에 완전히 들어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지휘처로부터 사격개시를 알리는 총성이 들려왔다.

아군진지에서는 일제히 여러정의 기관총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격을 개시하였다. 수류탄과 총알이 실새없이 날아갔다.

량쪽으로부터 불의에 불벼락을 맞은 적들은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순식간에 수십명의 적이 쓰러졌다.

살아남은 적들은 숨을 곳을 찾아해매다가 경위중대진지쪽을 향하여 기여가며 사격을 했다. 경위중대 대원들은 강력한 대응사격으로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다.

곶짜기에는 적들의 시체가 너저분하게 널려졌다.

유격대의 맹렬한 사격에 대부분의 적들이 소멸되었을 때 돌격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울리였다.

유격대원들은 매복한 지점에서 뛰어나와 만세를 부르면서 적진으로 돌입했다. 아직 살아남은 적들이 쏘는 총알이 귀전을 스치며 지나갔다.

적들이 최후발악을 하자 여기지기서 육박전이 벌어졌다. 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제야 적들은 저저마다 두손을 쳐들고 기여나왔다.

유격대원들은 항복하는 적들을 무장해제시키고 한쪽켠에 정렬시켰다. 포로는 30여명이나 되었다.

떠나갈듯이 요란스럽던 대마록구하곶은 다시금 조용해졌다.

눈우는 적들의 시체와 흩어진 무기, 배낭, 철갑모 등으로 너저분하였다. 포로된 적들은 유격대원들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했다.

총성이 멎은 곶짜기에는 벌써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어 전장수색이 진행되었다.

한참동안 전장을 수색하고있을 때 구석에 쓰러졌던 적병 한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유격대원들앞에서 멀리 도망칠수는 없었다.

이날 전투에서 적들은 140명이나 소멸되고 30여명이 포로되었다.

로획품을 조사하니 경기관총 6정, 보병총 100여정, 권총 30여정, 무전기 1대, 총탄 수만발이었다. 여기서 소멸된 적들은 유격대《토벌》에서 악명높은 마에다가 지휘하는 일제침략군들과 《신선대》에 속해있던 악질분자들이였다. 이리하여 대마록구하곶은 적《토벌대》들의 죽음터로 되고말았다.

이날 2km도 못되는 거리에서 마에다부대의 뒤를 따라오던 위만군 300여명은 일제침략군이 녹아나는것을 보고 더 달려들 엄두도 내지 못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술을 다시 한번 보여준 이 흥기대전투는 두만강연안에서 활동하던 적《토벌대》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동시에 대마록구전투, 흥기대전투 등 이해 봄에 진행한 국경지대에서의 승리적인 작전은 일제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는 국내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이 반일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크게 고무하였다.

항일빨찌산참가자 리오송

주체사상이 밝힌 민족문제

민족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며 운명개척의 기본단위이다.

사람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민족을 단위로 하여 살아나가고 있는것만큼 민족문제의 올바른 해결은 민족성원들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된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하고 악랄한 민족리간정책과 책동으로 민족들간의 대립과 분쟁이 국제적범위에서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급격히 표면화되고있는 현실은 민족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주체사상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고있는 사상이다.

민족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이다.

민족의 자주성이란 온갖 형태의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자기 민족의 운명을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려는 민족의 본질적속성이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것처럼 민족도 자주성을 떠나서는 그 존재와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주체사상은 민족문제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해명으로부터 민족문제해결의 근본원칙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민족문제해결의 근본원칙은 민족자주의 원칙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견결히 고수하고 실현해나가는 원칙으로서 민족문제해결의 핵으로 된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고수해야 민족자체의 힘으로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하고 민족의 운명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

게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고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관계를 발전시킬수 있다.

민족의 자주성실현에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있고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이 있으며 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기상이 있다.

민족이 자주성을 잃고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민족의 권리와 리익, 민족성과 존엄이 짓밟히고 민족적천대와 멸시, 망국노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피눈물나는 망국의 력사와 최근년간 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침략전쟁에 의하여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는 세계 여러 나라, 민족의 실태가 잘 보여주고있다.

세계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으며 민족문제의 포괄범위도 대단히 넓다.

민족문제에는 민족의 내부문제, 민족들사이의 관계문제, 민족적독립을 이룩하는 문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의 발전을 이룩하는 문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민족들은 다 자주성을 지향하고있으며 여러가지 형태의 민족문제들도 본질에 있어서는 다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문제이다.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자주성을 견결히 옹호고수할 때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민족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민족문제해결의 근본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방도는 민족적단결을 이룩하는것이다.

민족문제는 민족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문제인것만큼 어떤 민족문제에 있어서나 그 해결의 주체는 그 민족 자신이다.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체로 될 때에만 민족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으며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민족문제해결의 주체는 하나로 굳게 단결된 민족자체이다.

어느 민족이나 민족성원들의 공고한 단결을 실현할 때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민족의 통일번영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민족문제들을 민족적리익의 견지에서 성과적으로 풀수 있다.

민족의 대단결은 승리의 결정적요인이며 하나로 굳게 단결된 민족을 굴복시킬 힘은 이 세상에 없다.

70여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민족분렬의 고통을 안고있는 조선민족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과 통일의 실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는 현실은 민족의 단합이야말로 온 민족을 자기 운명개척의 주인으로, 민족문제해결의 주체로 전변시켜 모든 민족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주체사상이야말로 우리 시대 민족문제해결의 올바른 지도적지침을 마련한 민족자주의 사상이다.

평양기계종합대학 강좌장 원충국

어린 싹의 자양분

사람들은 흔히 아이들을 어린 싹에 비기곤 한다.

어린 싹과 같은 자식을 애지중지하며 품들여 키워가는 부모들의 가슴속에는 과연 무엇이 깃들어있을것인가?

우리가 이런 물음을 안게 된 것은 어느 일요일 저녁 동대원구역 동신1동 27인민반에 살고있는 고남수가정을 찾았을 때였다.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 실장으로 일하고있는 세대주 고남수는 12살 난 아들의 책상앞에 앉아 컴퓨터학습을 지도해주고있었다.

아들 수진이가 공부하고있는 책상옆에 붙여놓은 일과표와 일정표가 류달리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수진의 어머니 함은순녀성의 말에 의하면 수진이 아버지가 여름방학이 시작될무렵 아들의 일과표와 일정표를 직접 써주었다



애국의 마음 키워가도록 한다.

는것이였다. 그리고 아들이 이 일과표와 일정표대로 방학간생활을 옹바로 하도록 요구성을 이만저만 높이지 않고있다는것도 덧붙이였다.

수진의 아버지 고남수실장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안해에게 《가정은 인간육성의 첫 학교이고 부모는 인생의 첫 스승이라

고 했소. 우리 힘과 마음을 합쳐 수진이를 훌륭하게 키워 나라의 억센 기둥감으로 내세우지요.》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자양분이 되어 애어린 새싹을 무럭무럭 자래워 비바람눈바람에도 견딜수 있는 억세고 큰 나무로 키워가려는 마음을 안고 그



실천결부에 힘을 넣는 수진이의 부모들

들부부는 가정에서 자식의 교육자, 교양자가 되어 학습과 도덕생활뿐아니라 좋은일하기에서도 언제나 모범이 되도록 세심히 이끌고있다.

수진의 부모들은 자신들부터가 모든 면에서 아들의 거울이 되고있다. 그리고 매일 저녁이면 아들의 숙제와 일기쓰기를 꼭꼭 곁에서 봐주고있으며 또 일요일과 명절날이면 중앙동물원과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시내의 여러곳을 다니며 풍부한 지식과 상식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봄, 평양외국어학원에 입학한 수진이는 어머니와 함께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교향집주변에 푸르른 전나무모를 정성껏 심으면서 그 나무와 함께 애국의 마음도 자래울 결심을 하였다.

부모의 세심한 관심과 올바른 교육교양속에서 키도 마음도 어엿이 자란 수진이는 학습과 학

교생활에서도 모범일뿐아니라 레질이 밝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것으로 하여 선생님들과 동무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함은순녀성은 말하였다.

《부모는 자녀들의 단순한 보육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웅이나 명인들의 뒤에는 인생길을 바로 가라고 손잡아 이끌어준 훌륭한 부모가 있기 마련입니다. 넘어질세라 길을 헛들세라 수진이의 첫걸음을 떼어주던 그때처럼 우리 부부는 자식의 한생의 교육교양자가 되어 나라의 훌륭한 기둥감으로 키워가겠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농장원박사

평양시 사동구역 오류남새전 문협동농장에는 육종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윤원종농장원이 있다.

전문연구사도 아닌 그가 그것도 매우 어렵고 힘든 육종학분야에서 이런 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험한 일이 아니다. 그는 근 40년간 키낮은 과일나무들을 육종하는 사업에 온넛과 정열을 쏟아부어 새 품종의 추리, 복숭아, 살구나무를 연구하여 나라의 파수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가 처음으로 연구사업을 시작할 때는 20대의 청년시기였다고 한다. 당시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이곳 파수작업반에서 일하던 그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키낮은 과일나무를 많이 심을데 대하여 하신 교시를 접하게 되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키낮은 과일나무 하면 세계적으로 사과

나무는 있었어도 추리, 복숭아, 살구나무는 없었다. 이런 실태를 료해한 그는 자기가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현실로 꽃피워갈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먼저 키낮은추리나무육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었다. 연구사업은 험치 않았다.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잘 적응된 키낮은 접그루를 찾아내야만 성공의 열쇠를 질수 있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야생과일나무들에 대한 자료조사와 연구를 심화시켜나갔다.

그러던중 그는 나무의 키가 작으면서도 열매가 많이 달리고 수명이 긴 접그루를 찾아내게 되었으며 여기에 추리품종을 접하여 키낮은추리나무를 얻어낼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얻어낸 키낮은추리나무는 처음 몇해동안은 열매가 잘 달리었지만 점차 적어지는것이였다. 그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연구를 거

듭하였다. 그 과정에 그는 접그루에 알맞는 추리품종을 잘 선택하지 못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후 그는 시험포전에서 여러 품종의 키낮은추리나무들을 차례우면서 나무들의 생태학적특성을 파고들었다.

그렇게 고심어린 탐구와 해를 넘기며 거듭되는 연구과정에 그는 키큰추리나무보다 4~4.5배의 수확을 낼수 있는 키낮은추리나무육종에서 성공하게 되었다.

이어 그는 살구와 복숭아나무 연구에 달라붙었다. 문제는 접그루에 알맞는 살구와 복숭아나무종을 찾아내는것이였다. 하지만 복숭아나무종을 찾아내여 키낮은복숭아나무육종에서는 성공할수 있었지만 키낮은살구나무육종은 접그루에 알맞는 살구나무종이 없는것으로 하여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다. 그는 생각하던 끝에 살구나무종을 새롭게

육종해낼 결심을 하였다.

사실 그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하나의 새로운 나무를 육종하는데 한생을 다 바치는 경우도 있기때문이었다. 그때 그의 조수가 되었던 안해와 자식들은 그에게 한생을 다 바쳐도 그 새로운 종의 나무를 육종해내지 못할수도 있지 않나고 우려의 말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못 다하면 자식들대에 가서라도 무조건해야 한다며 주저없이 그 길에 들어섰다.

그는 시험포전에서 키낮은 과일나무들의 생태학적특성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한편 살구나무종을 육종하기 위한 연구를 거듭하였다. 때로는 미지의 과학의 세계를 파헤치며 책속에 묻혀 며칠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그러다나니 늘 시험포전에서 살다 싶이 한 그였다. 그런 그를 두고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집을 잇고 잠을 잇은 애국자》라며 그에게 힘과 신심을 주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는 말이 있듯이 가슴

속에 자기 령도자의 뜻을 관철해갈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수십년세월 연구사업에 모든것을 바쳐온 그의 노력으로 하여 마침내 새로운 살구나무종을 만들어낼수 있었으며 그에 기초하여 키낮은살구나무육종에서도 성공할수 있었다.

그가 연구완성한 키낮은복숭아나무는 종전의 키큰복숭아나무에 비해 3.5~4배의 수확을 낼수 있으며 키낮은살구나무는 정보당 5배의 수확을 내고있다.

이 키낮은추리나무, 복숭아나무, 살구나무들에 첫 열매가 달리었을 때 온 농장, 온 마을이 환희로 들끓었다고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파수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그의 연구성과를 료해하시고 애국적소행으로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을 안고 그는 오늘도 과일나무연구에 심혈을 바쳐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키낮은복숭아나무시험포전에서



윤원종박사의 가정



상식

과일껍질의 약효

- 신선한 사과껍질을 달여먹으면 가래가 많이 생기는것을 치료할수 있다.
- 신선한 배껍질을 달여먹으면 기침을 멈추고 가래를 삭일수 있다.
- 꿀꺽질로 차를 만들어 늘 마시면 입안냄새를 없앨수 있으며 꺽꺽질을 끓인 물과 술을 함께 마시면 변비를 치료할수 있다.
- 감꺽질을 부어오른데 붙이면 부은것을 내리울수 있으며 감꺽지를 달여먹으면 오줌이 잦거나 오줌에 피가 섞여나오는 증상을 치료할수 있다.
- 수박꺽질을 달여먹으면 열을 내리우고 독을 풀수 있으며 더위를 막고 오줌을 잘 누게 된다.
- 참외껍질을 넣고 끓인 물로 양치질을 하면 이빨이 쏘는것을 약화시킬수 있고 말린 참외껍질을 달여먹으면 더위먹은것을 치료할수 있다.

* * *

조선속담 (나약성)

- 두부살에 바늘땀
두부와 같이 물렁물렁한 살결에 바늘과 같이 가는 뼈라는 뜻으로 조금만 아파도 엄살하는 사람을 놀려서 이르는 말.
- 불 탄 강아지 앓는 소리
불에 타서 죽어가는 강아지의 울음소리라는 뜻으로 기진하여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신음하는 소리를 비겨 이르는 말.
- 술과 안주를 보면 맹세도 잊는다
술꾼이 다시는 안 마시겠다고 맹세는 여러번 하면서도 술을 보고서는 맹세를 잊고 다시 마시는 것과 같이 다시는 안하겠다고 맹세를 다지고서도 조건이 지어지면 맹세를 저버리는 사람을 비겨 이르는 말.
- 풀솨에 싸 길렀나
몸이 매우 약하거나 의지가 굳세지 못한 사람을 두고 룡으로 이르는 말.

* * *

비약의 앞장에 선 청년들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내고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청년연구사들

과학과 기술의 위력으로 경제발전의 지름길을 열어나가려는 조국의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그들중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기술자들의 모습도 있다.

돋보이는 교원, 연구사들

김책공업종합대학 선박리론강좌 전민혁, 심금성, 림은룡은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안되는 교원, 연구사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최근 과학

기술성파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그들은 고기배의 성능을 높일수 있는 새형의 고속쌍선체고기배를 연구완성하여 현실에 도입하였으며 수지선박연구사업에서도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이러한 성과를 이룩하면서도 나라의 체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력기교수훈련지원체계를 비롯한 여러 연구과제를 스스로 맡아안고 훌륭히 완성하였다.



연구사업의 앞채를 메고 연구구성원들을 이끈 사람은 전민혁이다. 사실 그들이 체육사업과 관련한 연구과제를 제기하였을 때 일부 사람들은 자기 부문에 대한 연구만 하자고 해도 아름답게 아직은 과학연구경험이나 준비정도가 어린 그들이 다른 부문의 연구과제까지 맡아안

고 실천한다는것은 힘든 일이라고 하며 반대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전민혁을 비롯한 연구구성원들은 조국을 빛내이는 체육과학발전사업도 자기들이 지닌 임무의 하나임을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고속쌍선체고기배연구개발사업과 함께 력기교수훈련지원체계연구사업을 동시에 내밀었다. 물론 이렇게 하자니 힘은 곱절이나 들었고 애로와 난관 또한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돕고 이끌며, 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완강한 투쟁을 벌려 끝내는 두가지 연구사업에서 다 성공하였다.

지금 그들이 연구완성한 현대적인 고속쌍선체고기배는 수산부문의 많은 단위들에 광범히 도입되고있으며 과학적이며 실용적인 력기교수훈련지원체계는 대학과 청소년체육학교, 체육단들에 보급되어 력기교수와 훈련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탐구전, 창조전의 앞장에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가보면 자체의 힘으로 연구제작한 현대적인 고치걸면제거기들과 전동기고정자가열 및 건조로 등을 볼수 있다. 100% 주체화되고 생산능률과 실리에 있어서 종전의 설비와는 대비할수 없는 새형의 설비들은 이 공장의 청년기술자들이 앞장에서 연구제작한것이다.

공장에서는 이 설비들을 새롭게 만들기 위

한 사업을 처음부터 공장의 청년기술자들을 믿고 내밀었다. 물론 그런데는 지난 시기 공장의 청년기술자들이 명주실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조사기 삭서가마자동온도조종장치와 온도수감부를 자체로 연구제작하고 또 자동조사기대면부체계를 개조하여 기대조작을 손쉽게 하도록 한것을 비롯하여 생산활동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한것과 관련된다.

자기들을 믿어주는 공장의 기대를 안고 리승일, 윤철민, 김진아 등 청년기술자들은 빠른 기일안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탐구전, 창조전을 벌려나갔다. 그러는 한편 그들은 해당기술자, 기능공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설계를 완성해나갔으며 현장에서 로동자들과 침식을 같이하며 설비제작을 진행하고 시험을 해보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리었다.

그 과정에 실패도 거듭하였지만 청년기술자들은 그럴수록 더욱 분발하여 마침내 새형의 고치걸면제거기와 전동기고정자가열 및 건조로를 훌륭히 완성할수 있었다.

성과는 공장의 다른 청년기술자들속에서도 이룩되고있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공장에서 필요한것은 자기들이 해야 한다는 관점을 안고 그 앞장에서 풀어나가고있는 이곳 청년기술자들의 탐구전, 창조전은 계속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새 기술을 현실에 도입해가고있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청년기술자들

상 식

중세기말 흰쌀의 명산지

우리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벼농사를 하였는데 중세기말에는 황해도, 평안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 우리 나라의 넓은 지역에서 광범히 재배되었다.

그중 흰쌀의 명산지로 이름난 곳

은 황해도 연백지방, 봉산 등지와 전라도 전주일대였다.

연백지방과 봉산의 흰쌀이 이름이 높았는데 그중 봉산의 흰쌀은 알의 허리가 길었으므로 장요미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졌을

뿐만아니라 중국에도 많이 수출되었다. 당시 중국사람들속에서는 봉산의 쌀을 한번 먹어보고 금강산을 세번 보는것이 소원이라는 말이 나돌기까지 하였다.

* * *



9연승을 기록한 여자송구팀

평양의 아름다운 모란봉기슭에 자리잡은 모란봉구역청소년체육학교에는 평양시에 유일한 팀인 여자송구팀이 있다.

이 팀은 지난해에 진행된 제54차 전국청소년체육학교체육경기대회와 제5차 청소년선수권대회 송구경기에서 각각 1위를 하여 9년째 연승을 기록하고 있다.

변주향, 리유미를 비롯한 학생들은 모든 경기때마다 결승단계

에서 맞다들리곤 하는 봉산군청소년체육학교 여자송구팀과의 경기에서도 10점 이상의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승리를 이룩하였다.

팀의 연이은 승리는 김경숙지도교원의 노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13년전 조선체육대학을 졸업하고 리명수체육단에서 선수생활을 하던 그가 이 학교 지도교원으로 배치되었을 때였다.

학생들의 송구기술이 일정한

수준에 오르지 못하였다는것을 간파한 김경숙지도교원은 적성체질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사업부터 시작하였다. 훌륭한 선수후비들을 키우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사업에 착수하였지만 모든일이 옥망대로 척척 잘된것은 아니었다. 여러 학교들을 찾아 적성체질의 학생들을 선발하였지만



수영열기 차넘치는 교정

조국에서 7월과 8월은 매우 무덥다.

찌는듯 한 무더위가 계속될수록 사람들의 생각은 시원한 물속으로만 흐른다.

그래서 조국에서는 7월과 8월을 해양체육월간으로 정하고 온 나라에 수영바람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각지에 꾸러진 수영장들과 해수욕장들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다.

우리가 취재나갔던 평양교원대학도 마찬가지였다.

번듯한 새 교사에 꾸러진 실내수영장에서 학생들은 해양국의 주인공들로 준비해가고있었다.

수영장에서 우리와 만난 김

명조 체육예능학부 학부장은 《대학에서 학부별로 수영경기를 조직했는데 어느 학부나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특히 교육1학부와 2학부 학생들의 열의를 조직했는데 어느 학부나 그

가 얼마나 높은지 점심시간도 수영기초동작을 익힌다.



일부 학부형들이 머리를 기웃거리며 자기 자식들을 소조에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기동감들이 학생들을 더 잘, 더 훌륭하게 키우려는 그의 진정을 알게 된 다음부터 학부형들은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나섰다.

그는 학생들이 하루빨리 송구에 정이 들게 하기 위해 그들의 훈련지도에 빠심을 들이였다. 그는 학생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방안을 하나하나 세워나갔다. 그는 훈련계획을 고정격식화, 멋따기가 아니라 현실성있게 세우고 측정기재를 비롯한 과학적인 수단들을 적극 리용하면서 훈련지도를 심화시키였다. 학생들의 훈련성과는 시간이 다르게 커만 갔다.

주체98(2009)년 전국청소년체육학교체육경기대회에서 첫 승리를 쟁취한 후 김경숙지도교

원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학생들이 부단한 훈련을 통하여 송구경기에서 많이 적용되는 공격기술들이 빠른 속도에 의한 직접던져넣기기술, 조약던져넣기기술, 오른손과 왼손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런락하는 기술, 속임기술 등을 높은 수준에서 소유하도록 훈련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그는 경기식훈련방법을 적극 적용하는 한편 앞서나가는 학생들에게는 보다 높은 목표를 제시해주고 그들보다 아래수준에 있는 학생들은 앞서나가는 학생들을 따라앞서도록 훈련목표를 명백히 주고 하루훈련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이 나날 해마다 이 팀의 학생들속에서 청소년명수들이 배출되곤 하였다.

현재 주장 리혜성, 문지기 김실경, 좌우공격수들이 최예경,

배련송학생들은 팀의 세대교체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속에서도 1등의 자리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야심만만한 배짱을 안고 한가지이상의 특기기술을 소유하기 위해 훈련을 드세치게 진행해가고있다.

이 소조를 마친 학생들은 현재 룡남산체육단과 김책공업종합대학체육단, 평양외국어대학체육단과 같은 대학체육단들에서 자기들의 송구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김경숙지도교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팀의 연이은 승리는 피라는 노력의 산물이다. 앞으로도 학생들에 대한 교수훈련지도를 더욱 짜고들어 오늘의 승리를 래일의 더 큰 승리로 이어나가겠다.》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물에 뛰어들이기 동작을 숙련시킨다.



열심히 수영을 배운다.

있어가며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리다가는 체육을 잘한다는 우리 체육예능학부가 질것만 같아 저도 은근히 조바심이 납니다.》라고 말하였다.

수영장을 둘러보니 정말 그러하였다.

교육1학부, 2학부 학생들은 체육예능학부의 수영선수들이 최수정, 양은정 학생들에게서 수영강의시간에 해결하지 못한 자세들을 배우고있었다.

한편 대학에 갓 들어온 체육예능학부 체육학과 1학년 입수, 한충일 학생들과 학전과 1학년 김류경, 황주학생들은 리길만 체육강좌에게서 물에 뛰어들이

기동작으로부터 여러 영법들을 배우고있었다.

눈에는 익고 손에는 실다고 동작이 완성되지 않아 물속에서 몇번이나 반복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나 얼마 안있어 세련된 솜씨로 물결을 헤가르며 나가는 학생들도 인츰 보였다. 그에 뒤이어 맏시있게 물에 뛰어드는 두 녀학생, 앞서거니뒤서거니 물을 헤가르는 남학생들... 수영장의 열띤 분위기는 우리의 마음도 흠뻑 젖어들게 하여주었다.

이런 수영열기, 경쟁열기는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9월5일상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9월5일상

평양시대 학생수영경기대회에서 이 대학이 순위권에 입선하도록 하고있다.

하기에 박금희 학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 1월 우리 대학을 찾아주시어 실내수영장에서 대학생들이 수영을 하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강하천이 많은 우리 나라의 특성에 맞게 우리는 모든 학생들을 수영명수로 준비시켜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엄향심

《우리 선생님》

평양시 서성구역 하신종합진료소에는 주민들로부터 《우리 선생님》으로 존경을 받는 의료일군들이 많다. 그것은 이곳 호담당의사들이 자기가 담당한 주민들에 대한 검진과 치료사업 등 의료봉사활동을 잘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뿐만아니라 주민들이 알기 쉽게 또 대상의 특성에 맞게 위생선전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는것은 물론 담당주민들을 친혈육처럼 대하고 있는것에도 기인된다.

호담당의사들의 모든 사업은 주민들모두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그들은 주민들이때없이 청하는 왕진도 달게 접수하고 치료해주며 때로 위급한 환자들이 생기는 경우에는 1차구급대책을 세우는 한편 상급병원으로 후송해주는 사업도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거기에 만성환자들과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매일과 같이 건강을 돌봐주는것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그들이 바치는 정성은 끝이 없다.

얼마전에도 이곳 진료소의 리금화의사는 뜻밖에 사경에 처한 주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사실 그때 구급대책을 세우고 환자를 상급병원에 후송해간 금화의사로서는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고도 볼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담당한 주민의 생명은

주민들에 대한 위생선전을 진행한다.



자기가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수술결과를 기다리며 밤을 지새웠고 수술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을 때에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그가 회복을 빨리 하도록 온갖 성의를 다 하였다.

어느 한 영예군인이 앓아누웠을 때 역시 그러하였다. 그는 환자의 몸에 욕창이 생길세라 위치를 변경시켜주고 약을 먹여주며 치료를 하였고 환자가 입맛을 잃었을 때에는 보약들을 마련해주며 끝내는 영예군인이 다시 일어나 대지를 활보하게 하였다.

이런 이야기는 리금화의사만이 아닌 진료소의 모든 의료일군들속에서도 수없이 발휘되고 있다. 하기에 이곳 진료소의 의료일군들은 누구나 담당주민들에 대한 치료와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두는 기록장이 있다. 기록장에는 치료사업에 대한 귀중한 경험과 교훈이 적혀있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보다 분발하여 자신을 기술실무적으로 준비해나가도록 추동하며 주민들을 위해 보다 헌신해가도록 고무해주고있다고 한다.

오늘도 이곳 진료소의 의료일군들은 자기들을 《우리 선생님》이라고 존경하며 따르는 주민들의 사랑과 믿음에 높은 의술과 정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영예군인의 집을 찾아





재간둥이들이 많은 유치원

신의주시본부유치원은 조국인민들속에서 재간둥이들을 많이 키워내고있는 전통이 있는 유치원으로 잘 알려져있다.

지난 기간 유치원에서는 꼬마시인, 꼬마음악가, 꼬마미술가와 같은 신동들을 수많이 키워냈다.

그들가운데는 즉흥시를 잘 지은 김일신, 붓글씨를 잘 쓴 구

대홍, 그림을 잘 그린 김혁일, 저대명수 김전리 등 어린이들과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서 높은 줄넘기기록을 보여준 나어린 뽀출명수들도 있다.

재간둥이들의 뒤에는 언제나 어린이들의 남다른 재능을 찾아 소중한 키워가는 교양원들이 있다.

그들의 성의있는 노력을 떠나 어린이들의 재능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

유치원의 교양원들은 천성적인 재능의 싹을 제때에 찾아내어 어린이들을 악기, 노래, 서예, 그림 등을 잘하는 재간둥이들로 키워내고있다.

우리와 만난 원장 공훈교원 강

노래안고 기쁨안고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있는 교양원들

순희는 《어린이들의 천성이 곧 재능의 전부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의 천성적인 재능을 제때에 발견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자래우는것이 더욱 중요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공훈교원들인 박춘옥, 박면숙 등 많은 교양원들이 어린이들의 소질과 취미를 정확히 찾아내고 활용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에 언제나 힘을 넣고있다.

그들은 누가 기억력이 좋고 글씨를 곱게 쓰는가, 누가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력이 높고 보고 듣고 느낀것을 형상적으로 표현

하려고 애쓰는가, 노래를 하나 배워주면서도 누가 악보상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술적각각이 남달리 특출한가 등에 깊은 관심을 두고 어린이들을 세심히 관찰하며 키워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 교양원들은 단순히 교재에만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교육방법을 탐구하여 실천에 적극 도입하고있다.

유치원에서는 교수경연, 풍금경연, 분파토론회를 자주 가지고 교양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잘해나가고있다.

그래야만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미래인 꽃망울들을 아름답게 활짝 피울수 있는

붓글씨를 익혀간다.



청음시간

원예사가 될수 있다는것이 교양원들의 하나같은 마음이다.

교양원들의 그런 마음과 노력에 의해 꼬마미술가들인 조령권, 전호령, 손정진어린이들과 붓글씨를 잘 쓰는 김용건어린이, 꼬마시인 김일해, 꼬마연주가들인 박송경, 홍광혁을 비롯한 많은 어린이들이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피우고있다.

이곳 유치원의 교육자들은 지난 기간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항상 목표를 높이 세우고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어린이들속에서 더 많은 신동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분발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재미나는 의사놀이





흥미를 끄는 전시회

주체 105(2016)년부터 매해 4월이면 평양의 청류관에서 사탕, 과자조각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곤 한다.

인민봉사부문과 대외봉사부문, 식료공장부문에 나뉘어 진행되는 전시회에는 많은 단위

들에서 창작한 수백종에 수천점의 사탕조각과 과자조각들이 출품되고 있다.

이 전시회가 진행될 때면 아이들은 어머니들의 손목을 잡고 전시회장을 찾곤 한다.

만화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

들과 동식물들, 건축물, 자연풍경, 과일 등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창작형상한 사탕, 과자조각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좀처럼 놓아주지 않고 있다.

올해 4월에도 제3차 사탕, 과자조각전시회가 진행되었는데



60개의 단위들에서 창작한 790여 종에 2 260여점의 사탕조각과 과자조각들이 출품되었다.

섬세한 세공기술로 대상의 특성들을 잘 살린 《밤송이》, 《강냉이수확》, 《철갑상어》를 비롯한 수많은 사탕조각들로 우리 나라의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자랑을 실감있게 펼쳐보인 옥류관전시대와 산뜻하고 고상한 색채로 식용적, 감상적 가치가 있는 의인화된 동물조각상들을 출품한 청류관전시대들은 전문가들과 참관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청류관 요리사 김은정은 거듭되는 실패속에서도 주저않고 전문단위들을 찾아다니며 필요한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여 사탕, 과자조각들을 만들었

다고 이야기하였다.

재료선택으로부터 포장용기에 이르기까지 손색이 없는 해방산 호텔, 평양곡산공장, 금성식료공장의 사탕, 과자조각들은 맛있고 영양가가 높으면서도 조형예술적으로 훌륭한것으로 하여 참관자들과 아이들의 호평을 받았다.

평양곡산공장 노동자 오혜경이 창작한 사탕조각 《조선의 기상》도 사람들의 눈길을 모았다. 호랑이의 털질을 얼마나 생동하게 했으면 사탕으로 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는 국내원료로 사탕조각을 만들 것을 결심하고 남모르는 노력을 기울이었다고 하였다.

기발한 착상과 재치있는 기교로 자기 지방의 특성을 엿볼수

있게 창작형상한 각 도종합식료공장들의 갖가지 전시품들도 이날이 발전하는 우리의 사탕, 과자조각기술수준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참관자들과 아이들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봉사활동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사탕, 과자조각시범출연까지 진행되어 전시회는 더욱 이채를 띠고 있다.

실지 사탕, 과자조각전시회는 어른들보다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의 환상의 나라를 펼쳐주는 것 같다.

영국관광객인 든 우디 토마스 리차드는 전시회장을 돌아보고 정말 멋있고 훌륭하다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슬기 사진 본사기자 김 평



《마음에 꼭 듭니다》

《도시가 정말 깨끗합니다. 거기에 거리로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화려하고 아름다우니 도시가 더 환한것 같습니다.》

이것은 얼마전 평양을 방문 하였던 중국 훈춘시에 살고있는 박초란동포가 한 말이다.

최근 사람들의 문화수준이 높아가는것과 동시에 옷차림도 보다 다양해지고있다.

평양시안의 여러 양복점들에서는 사람들의 미감과 정서에 맞게 여러가지 형태의 옷들을 봉사해주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여성들의 옷을 잘 만들기로 소문난 평천구역에 위치한 봉남양복점을 찾았다.

양복점안에 들어서니 옷을 주문하려고온 사람들이 많았다.

김승희 봉남양복점 책임자는 립체재단용품모형을 리용하여 주문자들의 체격과 생김에 맞게 옷을 재단하고있었다.

시침바늘을 꿸 손이 얼마나 빠르지 순간에 주문자가 요구하는 옷형태가 만들어지곤 하였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였던 장정희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옷설계강좌 교원은 요즘 립체재단용품모형을 리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옷들을 재단하는데 평천구역종합양복점산하 봉지양복점에서 첫시작을 떼고 봉남양복점을 비롯한 거의 모든 양복점들에서 그 경험을 받아들이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립체재단용품모형을 리용하여 옷을 재단하면 지난 시기 머리속에서 상상으로 그리면서 하던 평면재단방법보

손님들의 기호에 맞게

기능을 높여간다.



다 맞음률이 100%이고 사람들의 각이한 취미와 기호에 맞게 옷을 만들수 있다는것이였다.

장정희교원의 말을 들으며 김승희책임자가 재단한 옷을 보니 정말 그러하였다.

주문자가 요구하는 천의 재질에 맞게 장식, 주름에 이르기 까지 섬세하게 만들어지였다.

락랑구역 정오2동 43인민반에서 왔다는 정일옥녀성은 《마음에 꼭 듭니다. 내편에 머 리속으로 그려보던 옷형태대로 됐습니다.》라고 말하며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이런 말은 모란봉구역 비파 2동 51인민반에서 온 리금희녀 성과 만경대구역 선내동 57인

민반에서 온 박옥순녀성에게서도 들을수 있었다.

이렇게 설계된데 기초하여 김영심, 유은경재봉공들은 능란한 솜씨로 재봉기를 돌리며 옷을 만들고있었다.

주문자들과의 이야기를 끝내고 우리와 마주앉은 김승희책임자는 《옷에는 사람들의 사상감정, 정서, 미학관이 다 반영되는데 그 옷을 만드는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야 그만큼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부단히 착상하고 새것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김승희책임자는 양복점에서 국가망을 통해 과학기술전당에

새로 들어온 옷설계자료들을 수시로 보면서 피복분야에서 이 록되고있는 최신성과들을 옷제작에 받아들이고있다. 얼마전에도 립체재단용품모형에 대한 기술도서가 과학기술전당에 들어왔다는것을 알고는 제일 먼저 그것을 열람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는 시야를 넓히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재봉공들의 눈도 띄워주고 그들에 대한 요구성도 높여나가고있다.

그리고 수많은 옷형태도안들에서 새롭고 독특한것을 받아들이고있으며 색배합이나 장식, 절개선 하나에도 재단사의 진정을 담아가고있다.

그런 진취적인 노력이 있어서인지 그는 주체101(2012)년부터 주체104(2015)년까지 전국조선옷전시회 계절옷부문에서 1등을 하였으며 평천구역주민들과 주문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있다.

우리는 완성된 옷을 입어보며 기뻐 어쩔줄 몰라하는 주문자들의 모습을 뒤에 남기고 옷이 날개라고 앞으로 더 아름다와질 여성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이곳을 떠났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은별

상 식

조선의 국견 풍산개

풍산개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지고 친숙해진 조선의 토종개이다. 조선의 북부지방인 량강도 김형권군(이전의 풍산군)일대가 원산지이며 풍산개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풍산개는 경쾌하게 생겼으며 뒤다리가 굵고 탄탄하여 산악지대에서 잘 달린다. 대가리는 가볍게 들고 언제나 주위에 대한 감시와 경계를 하고있는 감을 준다. 눈은 불그스름하고 작으며 눈동

자는 검거나 재빛을 띤다. 귀는 비교적 작고 선 귀이며 앞 또는 옆으로 향해있다.

목은 굵고 짧으며 잘 발달되어있다. 배는 암컷이 약간 처진 감이 있으나 수컷은 등에 올라붙어 민활하게 움직이는데 편리하게 생겼다.

털색은 흰색이 기본이다. 추위와 여러가지 질병에 견디는 힘이 강하고 먹성이 좋다.

풍산개는 매우 용맹할뿐아니라伶俐하고 날래며 적수와 만나면 끝까지 싸우는 이악한 개이다. 특히 사냥에 훈련된 개는 감시를 잘하고 산에서 주인을 잘 따르며 적수가 나타나면 끝끝내 물어메치는 강한 투지와 용맹성을 가지고있다.

풍산개가 송아지만 한 호랑이를 물어메쳤다는 이야기며 먼 옛날 불이 난줄도모르고 잠든 주인을 풍산개

가 구원하고 죽었다는 전설같은 이야기도 전해지고있다.

생김새는 담차고 기질도 조선민족을 그대로 닮아 우리 인민은 먼 옛날부터 풍산개를 사랑하고있다. 예로부터 이름이 높았던 조선의 특산품종인 풍산개는 지금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었으며 조선의 국견으로서 국가적인 관심속에 적극 보호증식되고있다.

* * *



신양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

얼마전 우리는 평안남도 신양군을 찾았다. 신양군은 그리 크지 않은 산골군이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것은 이 고장 산천의 모습뿐이었다. 하지만

군의 면모는 몰라보게 변모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그것은 이 고장이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뜻밖에 들이닥친 자연재해로 혹심하게 파괴되었던것과도 관련되어있다. 그래서인지 전해지는 이야기 또한 많았다.

읍에서 우리와 만난 이곳 일군의 말에 의하면 당시 큰물로 하여 군의 대부분의 살림집들과 학교, 공장들이 떠내려가고 많은 주민들이 한지에 나앉게 되었다. 그때 군내인민들은 나라의 지원속에 화를 복으로 전환시킬 하나의 마음안고 빠른 속도로 피해복구사업을 진행하여 군의 면모를 일신시키였다고 한다.

우리는 군의 살림집과 학교, 공장 등을 돌아보았다. 먼저 들린 곳은 신양읍 60인민반에서 사는 박철준

의 집이었다. 한것은 이 살림집이 입사증과 함께 5년간 주인을 기다리고있던 집이었기때문이었다.

우리와 만난 집주인은 지금도 그때의 일들을 잊을수 없다고 하면서 부모잃은 설움이 있을세라 군사복무를 하는 자기에게까지 찾아와 우리가 부모를 대신하여줄테니 안심하라고, 새집을 지어놓고 기다릴테니 군사복무를 잘하라고 거듭 당부하였고 또 제대되어왔을 때에는 입사증을 안겨주면서 색시감도 보자고 하던 군일군들의 진정은 친부모의 사랑보다 더 뜨거운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런 이야기는 신양읍 74인민반에서 사는 박서향의 집에서 들을수 있었다. 그는 군일군들이 주민들에게 수질이 좋은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 수도망공사도 맡아하였고 물원천을 찾기 위해 하루에도 여러번이나 험

한 산밭을 오르내리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는 일군들모두가 마지막집까지 찾아와 물맛까지 보며 기뻐하였는데 그 광경을 보고 눈시울을 적시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하였다.

큰물피해의 후과로 자식을 보지 못하는 한 주민의 병을 고쳐주어 아들을 보게 해주었다는 이야기, 고향으로 돌아온 로인 내외에게 살림집을 마련해주고 세심히 돌봐주었다는 이야기 등이 이곳 일군들에 대한 군내인민들의 찬사는 끝이 없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학교와 초, 고급중학교 그리고 특색있게 꾸려진 군청 소년체육학교 등을 돌아보았다. 이곳들에서는 교원들이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교수 교양을 잘하여 재능있는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고있었다.

성과의 비결에 대하여 묻는 우리에게 그들은 후대들을 어떻게 하나 더 잘 키우기 위해 애쓰며 학교사업을 도와주는 군일군들의 진정이 자기들을 분발하

게 하였으며 좋은 결과를 거두게 하였다고 하는것이였다.

걱정에 넘친 그들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겨안은 우리는 규소카리비료공장도 돌아보았다. 우리와 만난 지배인은 자체로 규소카리비료생산방법을 연구하고 완성시켰다고 하면서 이 생산방법을 연구완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한 기술자를 내세우는것이였다. 기술자는 우리에게 지난 시기 자기 고장의 원료를 리용하여 새로운 비료생산방법을 연구해보려고는 했지만 연구사업이 아름답것이어서 결심을 내리지 못하였었다, 하지만 군내인민들을 위해 진정을 다해가는 일군들의 감동적인 모습에서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키워내는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임을 다시금 새겨안게 되었으며 그래서 소중한 조국을 위해, 고향땅을 위해 연구사업에 달라붙

어 끝내는 성공할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러한 목소리는 지방산업공장의 특색을 잘 살려 내외부를 훌륭히 꾸리고 통합생산체계에 의한 생산과 경영활동을 잘해나가는 식료공장과 고려약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서도, 자기들이 생산한 소주가 전국적인 경연에서 1등을 한 자랑을 안은 산과실가공공장의 종업원들속에서도 울려나왔다.

우리는 그들의 높뛰는 숨결을 받아안으며 군내인민들을 위해 멸사복무해가는 일군들이 있기에 이 고장의 발전은 확정적이라는것을 확신할수 있었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군에서 생산한 고려약품 봉사



신양산과실가공공장

군양묘장 종업원들의 휴식의 한때



염소떼 흐른다.
농악놀이로 들썩인다.



한생의 보람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평양보링관은 세계질근로자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곳이다.

보링을 하며 문화정서생활의 한때를 보내는 인민들의 모습을 대할 때면 평양보링관 지배인 신정호의 얼굴에도 즐거움의 미소가 비끼곤 한다.

주체83(1994)년 2월부터 문을 연 평양보링관이 이날이때까지 정상가동하고있는것은 그의 노력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처음에는 새 설비여서 가동이 순조로왔지만 흐르는 시간속에 설비들이 마모되기 시작하였다.

하루사업의 첫시작과 마감을 설비들을 돌아보는것으로 이어왔건만 물리적마멸로 인한 고장은 어쩔수 없는것이였다.

매해 1차씩 집중보수를 한다고 했지만 설비를 갱신하지 않는다면 정상운명을 할수 없었다.

결정적인 대책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하여도 이 부문에 대한 파악이 적었던 탓에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필요한 참고서적도 뒤지고 련관되는 곳들을 다녀봤지만 이렇다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제재책동은 더욱 로골화되였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는 사무실에 모신 한상의 사진을 우러르곤 하였다.

그것은 보링관을 찾아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모시고 그와 그의 안해가 함께 찍은 사진이였다.

평양보링관을 총련상공인 권영숙동무와 그의 가족이 기증했다는것을 아시고서는 그들이 훌륭한 일을 하였다고 치하도 해주시고 그 상공인의 동생이 신



신정호

정호지배인의 안해라는것을 아시고는 좋다고 하시며 과분한 교시도 주신 위대한 수령님.

그이께서는 그날 앞으로 평양보링관운영과 설비관리사업을 잘하여 보링관이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문화정서생활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 교시의 한자한자를 마음속에 소중한 안고 살아온 지배인이였다.

그래서 그는 자체의 힘으로 미끄럼판을 만들 결심을 가지게 되였고 그 제작을 위해 련관단위들을 무수히 오고갔다.

그 과정에 것처럼 어렵다던 보링설비들의 부속품들을 국내의 기술자, 로동자들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수 있었다.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보링뺑과 보링주로기름문제를 국

내의 원료와 자재로 실현할 목표를 내세웠다.

일부 사람들은 보링뺑은 특수재질로 만든것인데 어떻게 국내에서 만드는가고 하면서 수입에 의존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하지만 그는 기술자들과의 연구끝에 우리 나라에 흔한 나무에 특수수지를 섞우는 방법으로 크기와 질량이 똑같은 보링뺑을 만들수 있었으며 보링주로에 바르는 기름도 우리의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보링관운영에 바쳐진 그의 노력은 이뿐이 아니다.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도록 승용차놀이, 전자총을 비롯한 오락설비들도 갖추어놓았으며 여러 편의시설들도 꾸려놓았다.

참된 애국은 웃음꽃을 피우기마련이였다. 보링관을 찾는 사람들 누구나 좋아하였다.

하기에 나라에서는 조국을 위해 생의 뚜렷한 흔적을 새겨가는 신정호지배인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를 비롯한 국가적인 대회들의 대표로 불러주었으며

주체101(2012)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그이의 존함이 새겨진 세계표창도 수여해주었다.

그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곤 한다.

《지금 내 나이 여든이다. 짧지 않은 나의 한생을 돌이켜볼수록 사랑에는 보답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일본땅에서 학비가 없어 부모들의 일손이나 돕지 않으면 안되었던 나는 조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보내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으며 공부했다. 주체50(1961)년 조국에 귀국한 후에도 희망대로 평양건설대학(당시)에서 배움의 나래를 펼수 있었으며 오늘과 같은 애국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 너희들이 조국을 위해 뚜렷한 자기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오늘 그의 막내아들인 신주현이 아버지의 사업을 적극 도와나서고있다.

글 본사기자 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신정호지배인의 가정



신정호지배인은 평양보링체육단 단장사업도 겸하고있다.



유모아

한 선비가 친구로부터 부채 한개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 아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애들아, 이 부채가 참 귀하고 좋은 물건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몇해나 쓸것하냐?》

둘째아들이 이 물음에 대뜸 대답하였다.

《네. 이 부채를 한 일년은 쓸것 같습니다.》

뒤따라 셋째아들도 그렇다고 대

20년 쓸수 있는 부채

답하였다.

그러자 선비는 《예끼, 우리 집가산을 탕진할 녀석들은 너희들이로구나.》 하며 꾸짖고 맏아들을 쳐다보았다.

그제서야 맏아들이 조용히 대답하였다.

《동생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물건을 쓸줄 모르오이다. 이 부채는 20년은 문제없이 쓸수 있습니다.》

이 대답에 린색한 선비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 어떻게 20년 쓸수 있느냐?》

《네. 부채라는것은 접었다 폈다 하면 손상되는 물건이웁니다. 그러니 그것을 펴서 벽면에 매달아놓고 몸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바람을 쐬면 능히 20년은 쓸수 있습니다.》

* * *



중국 흑룡강성 오상현 조선족학교 전복순이모 앞

그리운 이모님에게

이모, 그동안 몸건강히 잘 있었습니까.

이모네 집에서 다들 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월은 류수와 같다더니 이모님이 고국을 방문하여 저와 상봉하던 그때가 어제런듯싶은데 벌써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모, 이제는 제 나이도 60살을 넘기고보니 먼저 간 부모님들생각과 함께 이모님생각, 사촌동생들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그리운 감정이 이모님의 모습을 불러왔는지 어제는 꿈속에서 이모님을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했던것보다는 더 정정해진 이모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기쁨에 이모님을 꼭 그리안



기까지 했습니다. 잠을 깨어서도 꿈생각이 머리속에서 떠나질 않아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펜을 들고보니 흘러간 지난날이 안겨왔습니다.

지금도 저의 머리속에는 우리가 중국에서 살 때 이모님이 우리 어머니와 꼭 붙어다니면서 늘 우스개소리를 하여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며 언제나 명랑하게 지내던 그 모습 그리고 저를 극진히 위해주고 색다른 음식이 생겨도 들고와서는 저의 입에 넣어주며 웃음짓던 인정깊은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명랑하고 웃음도 많던 이모님이었지만 저희들과 헤어질 때에는 왜 그리도 딴사람이 되어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었는지 그때는 다 몰랐습니다. 하지만 철이 들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혈육의 정이란 참으로 소중한 귀중한 것이어서 리별의 슬픔 또한 그만큼 쓰리

고 아픈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탓에 당해야 하였던 민족수난의 아픔을 다시는 겪을수 없다며 그것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고 늘 고국을 찾으며 애국사업에 헌신해온 이모님이었습니다.

이모,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마음무던한 동생과 살뜰한 며느리가 곁에서 잘 돌봐주고있어 여생을 마음편히 보내고있으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잘 있습니다. 이모가 저의 집에 왔을 때 작았던 그 집은 인차 기업소에서 떨어져나 도와 주어 크게 다시 지었고 그후에 또 새집을 받아 지금은 모란봉구역의 덩실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모는 혼자 살고있는 이 조카를 두고 마음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혼자 살고있지 않습니다. 남편은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저를 극진히 대해주고있어 아무런 걱정없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내외는 마을을 꾸리는 사업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답니다. 그리고 동, 인민반사업은 물론 집안팎을 알뜰하게 거두어 동네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고 건강에 특별히 류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년로하신 이모님이 오래오래 앉아계시고 사촌동생들의 일이 잘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이모, 이제는 이모가 건강때문에 오지 못해도 사촌동생들은 고국방문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근본이 있는 고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사촌동생들에게는 무척 유익하고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할것입니다.

이모, 보고싶은 마음, 하고싶은 말은 끝이 없을상실합니다. 편지를 끝맺으면서 다시한번 부탁하고싶은것은 사촌동생들이 이모부와 이모님의 뒤를 이어 고국을 잊지 말고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는것입니다.

그럼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평양시 모란봉구역 진흥동 51인민반
김수복올림

세인을 매혹시키는 불멸의 꽃



나는 이번에 길림육문중학교에서 성대히 진행된 우리 재중동포들의 태양절경축행사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녔다.

행사에 참가해서 나는 우리 조선민족이 얼마나 위대한분들을 어버이로, 수령으로 모시어왔는가를 다시한번 가슴뿌듯이 느끼었다.

더우기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활짝 핀 불멸의 꽃에 끌리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나쁜만이 아닌 행사참가자들모두가 불멸의 꽃전시대앞에서 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이번 행사에 중국정부의 일군들도 참가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조선인민의 걸출한 수령들의 위대성을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고 하면서 중국땅에서도 불멸의 꽃들이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참으로 옳은 말이였다.

태양절행사가 있기 바로 며칠전인 4월 9일 중국 사천성에서 열린 제15차 중국두견화전시회에서 김일성화와 김정일화에 각각 금상과 상장이

수여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재중동포들은 그 어느 민족도 가져보지 못한 수령복을 대대로 누려가는 행운을 지닌 조

선민족의 한 성원이 된 긍지와 자부심을 다시한번 가슴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진정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함을 모신 불멸의 꽃들은 온 세상에 만발하여 세인의 심장을 격동시키고있다.

태양절행사를 통해 나는 몸은 비록 해외에서 살아도 사상도 품모도 령도도 덕망도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천세만세 받들어모실 불타는 마음을 안고 통일애국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 결심을 더욱 굳히였다.

중국 길림성 매하구시지부 지부장 김청수



고국을 알게 하다

고국을 떠나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 있어 그리움은 항시적으로 존재한다.

특히 20여년전부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나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4월이 되기 전부터 마음은 설레이고 고국에 대한 생각으로 잠 못들게 된다.

아마도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선배들에게서 늘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때문일것이다.

나보다 먼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였던 선배들은 늘 축전에 참가해서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었던 때를 이야기하면서 감격스러웠던 그날을 영원히 잊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때부터 나의 가슴속에는 고국이 자리잡게

되었으며 선배들을 부러워하면서 앞으로 나도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품위있는 작품을 내놓기로 마음먹고 부지런히 노력하였다.

이렇게 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과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축전의 나날들은 나로 하여금 고국을 더 잘 알게 하는 계기로 되게 하였다.

이것은 나의 생활에서 큰 작용을 하였다.

하기에 나쁜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도 고국을 더 잘 알게 하고싶었다.

그래서 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로 미래, 미소예술단을 조직하고 그들에게 민족의 넋을 심어주고있다. 민족의 넋을 가슴에 새길 때는 고국을 위한 더 좋은 일을 할수 있을것이다.

나는 앞으로 그들을 훌륭히 키워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내세우겠다.

우즈베키스탄 따슈켄트시 남별



만경대 고향집 방문을 기념하여



만경봉에 올라



제20차 김일성화축전장에서

고국방문

처음으로 찾아본 고국

- 국제 고려인 통일련합회 대표단 -

온갖 꽃이 앞을 다투어 피어나 향기를 풍기는 화창한 봄날 국제 고려인 통일련합회 대표단 성원들이 고국을 방문하였다.

김 리라동포는 《나는 고국에 처음 와보지만 마치 고국이 언제나 나의 마음속에 자리잡고있는 고향과도 같은 생각이 든다. 왜 서일까? 나는 그 의문을 만경대 고향집을 돌아보고 풀수 있었

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이 말속에는 진정이 깃들어있었다.

김 리라동포와 그의 남편 김 예브게니뿐만 아니라 박 겐나지 동포도 모두 60살나이의 몸으로 고국을 처음 방문하였으며 방문 첫 일정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고향인 만경대를 찾아 유서깊은 이 고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만경대 고향집에 오늘도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살림살이도구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보면서 애국의 뜻을 가풍으로 이어온 만경대 혁명일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감동깊이 들으며 뜨거운 눈물로 불을 적시었다. 고향집 트랙을 나선 후 우물가에서 시원하게 샘물을 마신 동포들은 만경봉에 올라 아름다운

평양시의 전경도 부감하였다. 고국방문의 나날 국제 고려인 통일련합회 대표단 성원들은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경축의 꽃바다를 펼친 제20차 김일성화축전장을 돌아보았으며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평양교원대학, 아이들의 행복의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광량히 울려퍼지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그리고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 등을 찾았다.

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펼쳐주신 사회주의제도에서 만복을 누려가는 고국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감동속에 바라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평양교원대학에서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을 돌아보았다.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 마음을 실어보며

중앙동물원 코끼리사 앞에서 한껏 웃어보며



고유한 민족문자-훈민정음

동포여러분, 이번호에서는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더욱 풍부히 하여주는 훈민정음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의 하나입니다.

인류문명의 이른 시기에 독자적으로 형성된 조선어는 다른 나라의 언어와는 철저히 구별되는 언어로서 파란만장의 역사속에서도 자기의 본래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해왔습니다.

첫 통일국가인 고려이전시기에 존재한 같은 민족의 여러 국가들의 언어는 단일하였으리나 차이가 있다면 지역적인 방언으로 인한 차이뿐이었습니다.

이미 삼국시기부터 리두 문자를 사용하여오던 우리 인민은 1444년에 가장 발전된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실록》(1454년 편찬) 25년 12월 조에는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으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한다.》라고 써여있습니다.

조선봉건왕조의 4대왕 세종(통치년간: 1419년-1450년)의 직접적인 관여밑에 집현전의 이름있는 학자들이 지혜를 모아 고대시기의 우리 글자인 신지글자를 계승하여 만든 훈민정음은 글자 그대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소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창제당시 기본글자수는 자음 17자, 모음 11자 모두 28자였습니다. 훈민정음은 가장 발전된 글자로서 여러가지 우수한

특성들을 가지고있습니다.

훈민정음의 우수성은 무엇보다도 발전된 류형의 글자인 자모글자라는데 있습니다.

세계 글자류형에는 그림글자, 뜻글자, 소리글자 등이 있는데 소리글자는 소리마디글자와 자모글자로 구분되며 그가운데서도 가장 완성된 글자가 바로 자모글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말소리들도 자유로이 발음하고 적을수 있으며 그 어떤 사상적내용이



나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수 있는 훈민정음의 이러한 특성에 대하여 그 창제자들은 《천하의 소리를 다 적을수 있다.》고 하였었습니다.

훈민정음의 우수성은 다음으로 글자를 만든 원리가 과학적인데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사람의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는 독특한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제자들은 혀, 입술, 목구멍 등을 비롯한 사람의 발음기관이 소리를 낼 때 변화되는 모양을 본따서 기본글자를 만들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파생된 글자들도 다 체계성있게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은 이외에도 누구나 배우기 쉽고 쓰는데 편리한것을 비롯하여 많은 우점을 가지고있습니다.

훈민정음에 대하여 우리 선조들은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통달할수 있고 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흘이면 다 배울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외국의 언어학자들까지도 《만일 말과 문자로 한 민족의 문명수준을 잴다면 조선이 지구상에서 단연 앞자리에 설것이다. 그 글자는 간단하고 표현능력이 강하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교수가 《조선글은 세종대왕이 마치 컴퓨터가 나올것을 미리 알고 만들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것과 언어학계에서 제노라고 하는 유럽의 한 대학에서 《합리성과 과학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세계 모든 글자의 순위를 매겼을 때 조선글이 단연 첫자리에 올랐다.》고 평한것을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원리는 지난해 10월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동포여러분, 훈민정음을 놓고 우리는 오늘 또다시 조선민족이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로운 민족인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해외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말과 글을 즐겨쓰고있는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뜨거운 동포애적인사를 보냅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옥

북녘사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북부조국을 방문하면서 각계각층과의 만남을 통해 그리고 이 사회의 다양한 곳을 관찰하면서 느낀 북녘사회는 한마디로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고싶다.

나는 방북할 때마다 새로운것을 배웠다. 그럴 때마다 내자신이 부족함을 느껴왔다.

이번에도 많은 곳들을 참관했고 많은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다. 특히 그들을 통하여 이곳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이러저러한 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평소에 도저히 느낄수 없는 체험들도 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였다.

북녘사회에 존재하는 정신세계, 사람들의 의식속에 잠겨있는 사상체계, 이들의 생활신조와 가치관 및 이런것들을 신념화, 생활화, 습관화하는 교육체계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 이해할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되었다.

서방세계사람들 특히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의 국민들은 북녘사람들을 고약하고 야비한 사람이라고 꼬집으며 미개하다고 혹평해왔지만 북녘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의 지적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이었다.

북녘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사랑이 넘쳐나고 개명된 사람들이다. 이들의 집단력과 조직력은 세상에서 가장 발전되었다고 지적할수 있다.

그리고 집단주의사회의 본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대부분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소유하고있다. 이들은 인생관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며 어떤 삶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있는 생애인가를 각 방면에서 교양받는다.

그래서 북녘의 언론매체들은 그 어느것을 접해도 삶의 지표를 제시한다. 서방세계 지식인들은 TV를 가리켜 《바보상자》라고 지적하며 TV를 보면 볼수록 바보가 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북녘의 조선중앙TV방송은 그 프로그램들 내용자체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교양물들이다.

령도자의 인민사랑, 인민들의 령도자에 대한 사랑과 흠모 등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랑의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는것이 북녘의 언론매체들의 사명과 역할이다.

이것은 정치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다. 경제와 사회, 외교, 군사, 교육, 체육, 문화 등 사회전반에도 사랑의 철학이 큰 기둥을 이룬다.

나는 방북기간에 북녘사회가 가지고있는 힘은 핵무기보유나 미국까지 날라가는 무장력을 갖췄다는 국방력보다는 북녘사회가 가지고있는 사랑의 힘이 그 무장력보다 수천배 강한 저력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발견할수 있었다.

바로 그 유산을 조금도 손상하지 않고 그대로 물려받아 이민위천의 유훈정치를 한치의 드팀없이 성실하게 실천해가고계시는 지도자가 김정은최고령도자이시라는 사실도 피부로 느낄수 있었다.

그렇기때문에 북녘동포들은 김정은최고령도자를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과 꼭 같은인분이라고 생각하고있다는 사실을 발견할수 있었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이에 대한 뜨거운 환영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야말로 열광적이였다.

그이께서 등장하시면 북녘동포들뿐만아니라 해외동포들과 세계 여러 나라들의 축하단 대표들이 천둥치는 함성과 함께 우리같은 박수로 맞이해주었다.

소학교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그렇고 초, 고급중학교 학생들이나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도 령도자의 인민사랑, 인민의 령도자에 대한 흠모와 사랑은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령도자에 대한 생각은 마치도 그리스도교에서 예수를 말할 때나 불교인들의 석가모니에 대한 그 존경심보다 한층 더 절대적이였다.

이러한 북녘사회의 분위기는 군인들, 노동자들, 농민들 그리고 일반공무원들의 경우에도 레외가 없었다. 다시말하면 령도자, 당, 군민이 완전히 하나였다. 그 바탕에는 모두 사랑이 깔려있었다.

그 사랑은 때묻지 않았다. 순수했다. 이같이 북녘사회가 사랑으로 뭉쳐진 일심단결의 사회라는 사실을 방북기간에 너무나 실감나게 체험하는 계기를 가질수 있었다.

이렇게 사랑으로 결합된 북녘사회는 자위력에서도, 군사강국의 지위를 갖추게 한 첨단과학기술에서도, 종합음악예술에서도 최고수준의 실력을 과시했고 그리고 정치사상과 철학에서도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수 없는 수준을 갖췄기때문에 그 미래는 밝고 창창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민족통신》대표 로길남



시대의 앞장에서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나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커다란 감명을 받아안곤 한다.

아마 내가 해외에서 청년사업을 말아해서 더욱 그런것 같다.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청년강국이라는 부름을 두고 생각이 많아지게 된다.

시대와 력사발전에서 청년들이 노는 역할은 매우 크다. 그것은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는 사랑과 열정, 용감성과 패기, 왕성한 힘과 정의감을 지닌 청년들에 의해 국가의 전도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에 때문이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대국이나 강국에 대하여 인구, 령토, 자원,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자연지리적조건이나 사회의 일정한 분야의 발전정도를 놓고 말하여왔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의 장래와 잇닿아있는 근본문제, 청년문제를 옳바로 해결한 진정한 강국에 대해서는 론하지 못하였다.

그러다나니 세계적으로 청년문제가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난문제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하지만 조국에서는 청년들이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사랑을 받고있다.

그 사랑은 청년들이 떨치는 위훈에서부터 온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그것

을 잘 말해주고있다.

10여년동안 령하 30℃를 오르내리는 백두의 흑한속에서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굴함없이 발전소를 일떠세운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조국의 청년들은 칼바람 몰아치는 건설장에 자기의 고귀한 피와 땀을 묻으며 10년동안에 할 일과 맞먹는 방대한 공사과제도 불과 120여일동안에 해제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조국이 부르는 곳이라면 청년들은 그곳이 탄광이건 광산이건 외진 섬마을이건 아무러한 타산없이, 주저없이 달려간다.

얼마전 중국에서 인터넷를 통하여 대학을 졸업한 많은 조국의 청년들이 외진 섬마을과 농촌으로 자원진출해갔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그때 나는 놀랐다.

지금 어느 나라에서나 청년들이 수도시민권을 얻지 못해 안달이 나 하는데 조국의 청년들의 모습은 너무도 판이했기때문이었다.

그것은 무엇때문인가.

돈을 바라고 한일인가. 아니다. 그들은 조국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줄 알고 조국이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할줄 알며 그 집을 자기들의 어깨우에 걸머질 줄 알기때문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청년들이 이룩한 성과라면 그것이 크든작든 귀중히 여기시고 온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워주고 계신다.

조국에서 6년전에 진행된 청년절경축대회와 3년전에 진행된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그래서 외국의 한 출판보도물에는 이런 글도 실렸다.

《강국중의 진짜 강국은 주체의 청년강국 조선이다. 사상과 정신이 건전하고 단결되었으며 열정에 넘친 청년대군의 무한대한 힘에 의하여 사회가 들끓고 눈부시게 약동하는 나라, 그것으로 하여 전도가 끝없이 밝고 양양한 나라를 가리켜 청년강국이라고 할수 있다. 아무리 령토가 넓고 인구가 많으며 재부가 넘쳐나는 대국이라고 하여도 청년들이 사상정신적으로 병이 들면 그런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

그렇다.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우리 조국은 더 강해지고있다.

하기에 중국에서 살고있는 우리 동포청년들도 조국의 청년들과 발맞춰나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다.

중국에 있는 항일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찾아 선렬들의 투쟁업적을 배우고 실천활동에 구현하고있으며 민족성을 지키기 위한 사업에 몸을 잠그고있다. 그리고 조국의 주요명절이나 계기들에는 저저마다 진귀한 꽃다발들을 마련해서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드리우고있다.

나는 앞으로 청년강국을 조국으로 둔 자랑을 안고 청년사업을 더 참신하게 벌려나가겠다.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사무국장 리설희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음악 (2)

조선봉건왕조시기 민간기악도 발전하였다.

근로인민들속에서 다양한 악기들이 광범히 리용되고 료재비, 사당패와 같은 민간예술인집단들이 활동하였으며 뛰어난 음악적재능을 가진 기악명수들도 나왔을뿐아니라 인민들의 정서적수요에 의하여 악기의 재질과 형태도 발전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우리 인민들의 생활속에서 농악이 성행하였다.

농악은 이 시기 가장 대중적인 민간기악연주형식의 하나였다. 당시 우리 농민들의 로동속에는 항상 농악이 있었으며 공동로력협조풍습인 두레의 발달은 농악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켰다. 각 지방 농민들속에서 농악이 항시적으로 연주되면서 그 예술적형상이 발전하는데 토대하여 농악을 전문으로 공연하던 민간예술인집단도 생겨났는데 걸립패라고 하였다.

걸립패의 농악은 각 지방들에서 진행된 농악과 그 연주편성과 연주형식이 같았으며 단지 그 예술적형상기교가 더 높다는 측면에서만 차이가 있었을뿐이다.

또한 민간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피리, 통소, 저대, 단소와 같은 주관악기들이 널리 연주되고 가야금, 거문고, 비파와 같은 현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재능있는 음악가들의 음악활동도 강화되었다.

민간의 평범한 인민들속에서는 값이 높고 제작이 힘들지 않은 피리, 통소, 저대, 새납, 단소와 같은 관악기들이 연주되었는데 특히 피리가 대중적인 악기로 쓰이였다. 우리 나라 각 지방의 소년들은 누구나 자체로 버들피리 같은것을 만들어 어떤 노래나 능숙하게 불줄 알았다. 함경도에서는 집집마다 통소 한대쯤은 갖추어놓고 누구나 통소곡들을 연주하였고 각 지방들에는 저대, 새납, 단소명수들이 많았다.

가야금과 거문고, 비파나 해금과 같은 현악기들은 값이 비싸 농민들은 마련할수 없었으며 주로 문인선비들이나 량반집의 녀인들이 많이 연주하였다. 또한 새로운 민족악기들이 창조되어 민족악기의 종류들이 다양해지고 료재비들의 연주활동도 활발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민간예술인들인 료재비의 활발한 연주활동은 민족예술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료재비란 말그대로 6명으로 구성된 악공들의 집단을 말한다. 료재비들의 음악을 삼현륙각이라고 하였다. 삼현륙각이란 악기의 편성과 연주방식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

18세기 이름난 그림 《춤》, 《풍속도》에 료재비들의 연주모습이 생동하게 묘사되어있어 그들의 연주활동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알수 있다.

조선봉건왕조 후반기에 이르러 민속극음악이 새롭게 발전하였다.

민속극음악은 극적성격이 강한 민족음악형식으로서 대표적인것으로는 조선봉건왕조 후반기에 우리 나라 남부지방에서 재능있는 소리명창들이 부른 판소리를 들수 있다.

판소리는 18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전라도지방에서 발생하여 근 200년간 발전하여온 서사적인 가요형식의 하나였는데 한사람의 가수가 복장단에 맞추어 다양한 발성기법으로 민간설화의 내용을 노래형상으로 생동하게 부르는 노래형식이였다. 단순한 곡조로 불리워지는 대중적인 민속가요와 달리 오랜 시간 소리명창들이 높은 발성기량을 발휘하면서 인간생활의 구체적인 측면들을 아주 생동하게 극성이 강한 음악으로 출연한다는데 민속극음악의 특성이 있다.

많은 작품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 평안도지역에서 미신을 타파하는 내용의 《배뱅이굿》이 인기를 모았다.

이 시기 민속음악이 다양하게 발전하는데 토대하여 궁중예술도 발전하였다.

15세기 우리 식의 궁중례악인 조선아악이 창제되고 민족성이 강한 음악으로 궁중의례행사들이 진행되었으며 많은 민족예술작품들이 궁중에 류입되었다. 뿐만아니라 궁중에서 새로운 악기제작과 함께 악보편찬사업도 추진되어 《세종악보》, 《대학전보》, 《속악원보》를 비롯하여 궁중악곡들을 기보한 악보들이 편찬되었다.

이 시기 우리 인민들의 음악정서생활이 보다 높은 수준에 오르면서 악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악기제작기술이 발전하였으며 교방과 리원을 비롯하여 악기연주기법과 노래형상수법들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기구들에서 음악교육도 심화됨으로써 민족음악은 민족적색채를 더욱 뚜렷이 나타내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봉건왕조시기 우리 민족의 뛰어난 예술적재능과 슬기를 보여주는 우수한 음악유산들이 수없이 창조되고 그 예술적형식이 더욱 발전함으로써 민족음악의 전통이 굳건히 이어지고 민족음악문화유산의 보물고는 보다 풍부해지게 되었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박사 김선영

력서의 발전에 기여한 강보

1294년 초겨울 어느날이었다. 해저물무렵 개경 황성앞에 자리잡은 전리사의 요란한 솟을대문을 나서는 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력서편찬과 천문관측을 맡아보는 태사국에서 일하게 된 강보였다.

한달전에 있는 과거에서 급제하고 처음으로 벼슬길에 나선 강보는 이미 오래전부터 력서를 만드는 태사국에서 일하기를 간절히 바랐었다.

나라에서는 강보의 이 마음을 헤아려 태사국에서도 직접 력서를 만들 소임을 지닌 종9품의 사력이라는 자리에 그를 임명해주었다.

종9품의 사력은 말직벼슬이라지만 산학(수학)에 달통하지 못한 사람은 엄두도 낼수 없는 태사국의 노란사위같은 자리였다.

이튿날 태사국에 나타난 강보는 그날부터 력서를 만드는 일에 달라붙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빠른 시일안에 똑바른 력서를 만들어낼뿐아니라 몇해 지남에 따라서 어쩔수없이 차이나는 절기를 바로잡을수 있는 계산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그 생각뿐이었다.

당시에는 력서를 양력이 아니고 음력으로 만들어쓰다보니 해에 따라서 한해의 절기가 차이 나게 되어있었다.

결과 음력과 양력사이에는 33년이 지나면 약 한해의 차이가 생겨나게 되어있었다.

하여 음력에서는 달수를 보고 그 달이 어느 계절에 속하는지 알수가 없었다.

이러한 편향을 바로잡기 위하여 음력으로 만든 력서에서는 해마다 절기를 수정해야만 하였다.

그러하기에 력서를 바로 만들어 계절을 정확히 밝히는 일이 력대의 모든 나라들이 지극히 중시해오는 국사중의 하나로 되고있었다.

강보가 먼저 파고든 일은 한해 24절기에 따르는 태양의 위치와 자리길에 대한 계산이었다.

그는 태사국에 들어온지 한달만에 벌써 절기에 따르는 태양의 위치계산을 절반이나 해제킬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어머니가 앓는다는 기별이 전해졌다.

그 소식을 전달받은 강보는 늘 아들에게 맹목적인 효자가 되지 말라고 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눈곱이 축축해졌다.

아버지없는 외아들을 키우느라 가난속에서 병

을 만난 어머니였다.

서둘러 집으로 온 강보를 본 어머니는 경상도에 기여든 왜구와의 싸움에서 눈을 감으며 강보를 수학자로 키워달라고 유언하던 강보 아버지가 떠올랐다. 그래서 앓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않고 강보에게 력서만드는 일을 너무 쉽게 대하지 말라고 일깨워주었다.

이튿날 새벽 태사국에 출근한 강보는 또다시 력서를 만드는 일에 몰두하여 마침내 소한전으로 다음해에 내놓게 될 새 력서를 만들어내었다. 나라에서는 그가 만든 력서를 이전에 쓰던 력서의 이름 그대로 수시력이라 부르게 하였다.

강보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해마다 절기가 똑바른 력서를 손쉽게 만들수 있게 하는 계산법을 내놓는 일에 달라붙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옛말들을 들려주며 누구든지 뜻을 품고 정신을 모아 피타는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빛을 보게 된다고 그에게 힘을 주었다. 그러면서 너무 저 혼자만이 큰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할것이 아니라 마땅히 함께 일하는 웃어른들에게 의탁해서 그분들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스승들은 강보에게 계산법을 내놓을수 있는 실마리를 안겨주었다.

강보는 력서를 아무때건 손쉽게 뜯어고칠수 있는 수표를 만드는 일에 달라붙었다.

그 과정에 만들어낸 독특한 계산식이 바로 오늘날 $x^2+ax^2+bx+c=0$ 이라고 하는 4차방정식이였다.

강보는 이 계산식으로 수식의 날바다를 끝까지 헤치고 자기가 새롭게 만들어낸 력서인 수시력을 해마다 손쉽게 수정할수 있는 수표 《수시력립성》을 내놓을수 있었다.

하여 세세년년 《수시력립성》의 덕택으로 절기가 똑바른 력서가 나올수 있게 되었다.

《수시력립성》은 나오자마자 온 세상이 다투어 받아들였다.

그 이후 강보는 력법의 비결을 고스란히 공개하는 《수시력립법성》도 내놓았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19세기에 이르러서야 4차방정식의 풀이법이 발견되었다.

* * *

장지연과 《시일야방성대곡》

언론인이며 문필가인 장지연은 문화계몽운동가이기도 하다.

본래 그의 이름은 지윤이었다. 자는 순소, 호는 위암 또는 송양산인이다. 경상북도 상주태생으로서 1894년에 진사가 되었다.

그는 1895년 일본침략자들의 만행으로 명성황후가 살해된 참변에 접하여 의병투쟁에 결기할 것을 호소하는 격문을 작성하여 곳곳에 발송하였다.

1898년 신채호, 박은식 등과 함께 《황성신문》창간에 참여하고 그 주필로 사업하였으며 1901년에는 황성신문사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이무렵 그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거세를 항일구국어로 부르며

문명개화와 자주독립의 사상을 고취하는 글들을 많이 써냈다.

1905년 일제에 의한 《을사5조약》의 날조로 나라가 외세의 식민지로 전락되는 비운을 겪게 되었을 때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이날에 목놓아 크게 통곡하노라)》이라는 론설을 집필발표하여 일제침략자들의 악랄한 책동과 매국역적들의 죄악을 폭로규탄하고 망국의 원통함을 비분강개한 어조로 토로하여 동포들의 심장을 울리었다.

이 일로 《황성신문》은 일제의 탄압을 받고 80일간 정간되었으며 신문사사장이며 론설집필자인 장지연은 3개월간 투옥되었다.

출옥후 그는 통정대부로 등용하려는것을 거절하고 은퇴하여 문헌유산의 수집과 저술사업에 힘썼다.

1906년 1월에 석방된 후 3월에는 《대한자강회》를 조직하고 반일애국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1907년에 《정미7조약》이 날조된 후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연해주로 망명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해조신문사 주필로 일하였으며 거기에서 다시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1910년에 귀국한 후 폐간될 때까지 《경상일보》 주필로 있었다.

저서로는 《유교연원》, 《위암문고》 등이 있다.

* * *

관속에 들어간 《대일본제국》

항일무장투쟁시기인 주체24(1935)년 액목현 청구자일대에서 있는 일이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친솔하신 제2차 북만원정부대가 액목땅인 청구자의 4호부락에 머무르고있을 때 6호부락에 주둔하고있는 일본수비대와 위만군이 4호부락쪽으로 밀려올 준비를 하고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청구자는 일제침략군의 본거지인 액목현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있는 지역으로서 4호, 5호, 6호, 7호 등 여러개의 작은 부락으로 이루어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수백명의 《토벌대》를 사로잡기 위한 령활한 전술을 세우시고 유인매복전을 벌리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겁을 잔뜩 먹은 일본수비대의 통역관이 어느 남새밭가운

데 있는 중국인의 집으로 도망쳐 왔는데 그때 그 집 마당구석에는 판이 놓여있었다. 당시 액목지방에서는 로인들이 미리 자기의 판을 준비해두는 풍습이 있었다.

판을 본 통역관은 무작정 그 안에 들어갔다. 인민들의 풍습을 존중하는 유격대가 관속은 뒤지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걸었기때문이었다.

그런데 전투장에서 겨우 살아남은 일본수비대 장교가 부상당한 다리를 끌고 또 이 집으로 기여들었다.

그는 판을 발견하고는 너무도 기뻐 그속에 들어가 숨을 생각으로 급히 판덮개를 열었다. 그런데 관속에는 이미 산송장 하나가 대가리를 치막고 누워있었다.

화가 치민 일본수비대 장교는 《황군》도 몰라본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통역관에게 당장 나오라고 호통쳤다. 통역관은 그 소

리는 들은듯만듯 관밖으로 팔을 뻗쳐 투경을 찾았다.

일본수비대 장교와 통역관사이 서로 판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졌다. 일본수비대 장교가 총을 뽑아들어서야 통역관은 와다닥 놀라 판에서 기여나와 어디론가 출행랑을 놓았고 장교는 관속에 들어가 척 누웠다.

서로 송장이 되겠다고 싸우는 꼴을 보며, 일본군 수비대장교가 관속에 들어가 누워있는 꼴을 보며 액목인민들은 《대일본제국》이 관속에 들어갔다고 말하며 저저마다 배를 그러안고 돌아갔다.

항일유격대에 녹아난 일제의 몰골과 정신도덕적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도 전해지고있다.

* * *

조국의 천연기념물 (19)

황해북도의 천연기념물들에는 평산엄나무, 신계은행나무, 구락리어름치와 췌리, 달해산성 절벽, 룡궁리공룡발자리화석도 있습니다.

평산엄나무는 황해북도 평산군 산성리의 해발 500m되는 태백산성안의 휴양각마당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1780년경부터 자란 이 나무의 높이는 18m, 뿌리목둘레는 2.1m이며 나무갓너비는 10m입니다. 나무는 50cm 높이에서 네갈래로 갈라져서 위로 자라며 많은 가지들이 넓게 퍼져 나무갓은 우산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는 오래 자란 나무로서 학술적의의를 가지며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유산과 더불어 이곳의 풍치를 돋구어주고 있습니다.

신계은행나무는 황해북도 신계군 침교리 죽동마을어구의 서쪽 산기슭에서 자라는 암나무입니다.

1270년경에 심은 이 나무는 고려시기 레성강을 오르내리던 배를 매여두던 나무였다고 합니다.

나무의 높이는 18.5m이고 뿌리목둘레는 9.3m, 가슴높이둘레는 6.1m이며 나무갓너비

평산엄나무



는 30.7m입니다.

나무는 5m의 높이에서 5개의 큰 가지가 옆으로 뻗고 다시 많은 가지들이 퍼져 우아한 감을 줍니다. 나무껍질은 재빛색이고 터짐이 심합니다.

나무는 신계일대에서 가장 오래 자란 나무로서 학술적의의가 크고 마을의 풍치를 돋구어주고 있습니다.

구락리어름치와 췌리는 황해북도 신계군 구락리의 레성강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신계읍으로부터 서쪽으로 서흥읍을 통과하는 길을 따라 약 6km 가면 레성강다리가 있는데 이곳이 어름치와 췌리의 알쓸이터입니다.

강건너에는 산봉우리가 있고 그밑에는 깊은 소가 있으며 우아래에는 여울이 있습니다. 이곳 웃여울에서는 주로 어름치들이, 아래여울에서는 췌리들이 알쓸이를 하며 겨울에는 아래우로 이동하며 깊은 소에 모여서 겨울나이를 합니다.

달해산성절벽은 황해북도 신평군 읍에서 약 6km 떨어진 생양리에 있습니다.

절벽은 우리 나라 중부지방에서 가장 높고 긴



절벽입니다. 이 절벽의 부근에는 해발 1 341m 되는 백년산을 비롯하여 두무산, 만년산 등 아호비령산줄기의 주봉들이 솟아있으며 지형은 몹시 깎이었고 급한 경사면과 협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절벽의 모양은 지금으로부터 약 11억 년전에 이루어진것입니다.

높이는 50~60m이고 길이는 약 100m이며 산등성이에 흰색갈의 규암층으로 된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절벽면에는 소나무, 참나무들이 무성합니다.

달해산성절벽은 중원생대의 대표적인 규암절벽으로서 학술연구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룡궁리공룡발자리화석은 황해북도 평산군 룡궁리에서 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화석이 나타난 돌판의 길이는 약 100m이고 너비는 15m이상이며 경사각은 20°정도입니다.

공룡의 발자리는 두줄로 나있는데 이것은 공룡이 두발로 걸어다녔다는것을 보여줍니다. 한 줄에는 14개, 다른 한줄에는 16개의 발자리가 나 있습니다.

한개 발자리의 길이는 45cm, 너비는 40cm입니다. 그리고 오른발과 왼발사이의 거리는 80~90cm이며 발자리의 깊이는 4cm정도입니다.

이곳에는 3개 류형의 발자리가 있는데 발자리의 크기로 보아 당시 이 지역에 큰 공룡이 살고있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달해산성절벽



신계은행나무

여기에는 다양한 식물화석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석들에 의하여 이 지층의 년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9 300만년전의것이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는 다른 나라의 지질학자들도 학술 연구를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룡궁리공룡발자리화석은 우리 나라 중생대시기의 동물상과 그 진화과정을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자료로 되고 있습니다.

김형직사범대학 강좌장 백현성

룡궁리공룡발자리화석



구락리어름치

췌리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범죄



금광사 대웅보전

평안북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9)

- 금광사 -



대웅보전 천정

금광사는 평안북도 의주군에 있습니다.

금광사는 1848년이전에 세우고 19세기 중엽 다시 지은것입니다. 이 절이 위치한 석송산은 경치가 아름다와 《의주금강》이라고 일러왔으므로 금광사를 금강사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금광사에는 중심건물인 대웅보전을 비롯하여 백화전, 청운당, 만세루 등 열한채의 건물들이 처마를 서로 마주 대하고 서 있습니다.

대웅보전은 정면 3칸(9.25m), 측면 2칸(6m)의 큰 건물인데 10개의 두리기둥이 합각지붕을 떠받들고있습니다.

이 건물의 특징은 두공이 포식

과 익공식을 배합한것입니다. 정면은 바깥 5포, 안 7포에 락꽃을 조각한 산미로 지붕받침을 장식하였다면 뒤면은 단익공으로 소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류달리 굽은 기둥은 보통흐름식기둥이 아니고 밀직경과 옷부분직경의 차이가 적게 밋밋하게 다듬었으며 다른 건물보다 나지막한 평판방을 둘러엮었습니다.

대웅보전앞에 있는 만세루는 정면 3칸(10m), 측면 2칸(5.7m)의 산뜻한 다락집입니다. 밀에 돌기둥을 10개 세우고 그우에 마루를 깔았으며 경사지를 잘 리용하여 정면은 2층처럼, 후면은 단층처럼 보이게 세웠습니다. 만세루에는 정면과 후면에

세살문을 달고 측면에는 널벽을 하였습니다.

백화전은 정면 5칸(17.1m), 측면 4칸(9.8m)의 단익공 흘처마의 합각집이며 칠성각은 정면 2칸(4.65m), 측면 1칸(2.6m)의 두공이 없는 흘처마 배집입니다.

자연풍치에 어울리게 여러가지 지붕이 처마를 맞대고있습니다.

금광사는 규모가 큰 건물의 하나로서 조선봉건왕조 말기의 건축양식을 여러모로 보여주는 유적입니다. 금광사는 국보적유적으로 잘 보존관리되고있으며 근로자들의 즐거운 문화휴식터로 리용되고있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슬기

남조선에서 보수패당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련속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하였던 한 인물이 상부의 지시밑에 자기가 지난 2006년부터 벌려온 각종 여론조작행위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토하였다.

2007년의 《대통령》선거과정만 놓고보아도 《한나라당》의 선거운동에 동원된 그는 외딴 곳에 사무실을 꾸려놓고 상부에서 제공해준 100여개의 인터넷가입자이름으로 리명박역도를 지지하는 글들을 무더기로 게재하였다. 그는 자기의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 토설하면서 BBK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을 밀어내라.》는 상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것을 고백하였다.

박근혜 역시 협잡《대통령》이라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박근혜의 선거운동본부에서 활동하였다고 하는 한 인물이 지난 2012년의 《대통령》선거 당시 역도를 당선시키기 위해 《새누리당》이 감행한 여론조작범죄행위를 폭로하였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여론조작놀음에 동원된자들은 박근혜역도에게 유리한 여론을 류포시킴에 대한 지시가 떨어지면 자동입력프로그램을 리용하여 짧은 시간에 1천여건에 달하는 글들을 중복게재하였다. 이런 사실을 폭로하면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여론조작행위를 한것으로 하여 그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알수 없지만 명백한것은 여론조작놀음에 참가한자들중 적지 않은 대상들이 박근혜역도의 집권이후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비렬한 모략과 더러운 술책으로 권력의 자리를 찬탈하고 명줄을 부지해온 역적배들의 추악한 몰골이 날날이 드러났다.

남조선보수패당이 지난 시기 정보원과 경찰, 기무사령부 등 권력기구들을 총동원하여 선거부정행위들을 저질렀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보수패당은 나중에는 《당》내에서까지 여론조작범죄를 조직적으로 감행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현대과학기술까지 도용하며 여론조작행위를 감행한 남조선보수패당이야말로 범죄의 소굴이며 부정선거, 협잡선거의 원흉이다.

보수패당이 감행하여온 여론조작행위는 민주주

의를 유린한 특대형범죄이다. 그것은 사건이 일부 개별적성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역당이 직접 나서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조직적인 범죄이러는데 그 엄중성이 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보수패거리들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한짓이란 갖은 날조와 음모적인 방법으로 사대매국과 파썬독재, 부정부패와 동족대결에 매달린것밖에 더 없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사건, 리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전교조탄압사건 등 남조선에서 있는 많은 사건들이 다 보수패당의 작간에 의해 생겨났던것들이다.

보수패당의 이러한 거짓과 모략으로 하여 남조선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는 무참히 말살당하였으며 파썬독재가 더욱 기승을 부리었다.

그뿐이 아니다. 보수패당은 권력의 안전을 위해 《천안》호 침몰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건들을 꾸며냈을뿐 아니라 북과 남사이의 갈등과 대립도 더욱 격화시켰다.

모든 사실들은 보수패당이야말로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가장 부패한 무리, 철저히 청산해버려야 할 쓰레기집단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권모술수로 권력욕을 채우고 온갖 부정협잡행위로 민심을 기만우롱하며 반역《정권》을 유지해온 남조선보수패당의 더러운 정체는 절대로 가리울수도 용서할수도 없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에서 보수적폐청산기운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속에 박근혜, 리명박역도들은 물론 그들에게 붙어먹던 공범자들까지 범죄행위가 계속 폭로되어 줄줄이 법정애 끌려나가 줄경을 치르고있다.

남조선에서 이전 대법원 원장을 해먹던 량승태가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 보수《정권》유지를 위해 사법행정권을 마구 람용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

최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다. 온갖 사기협잡과 부정부패행위로 세상을 어지럽힌 보수패당이 민심의 징벌을 받고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본사기자

골수에 들어찬 재침야망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낸 때로부터 백여년 세월이 흘렀다.

오랜 세월 하나의 피줄을 잇고 한강토에서 살아온 조선민족을 영영 없애버리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한 일제의 만행은 천년, 만년이 지나도 절대로 덮어버릴 수 없는 대죄악이다.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을 통하여 조선의 외교권과 내정권을 강탈한 일제는 조선민족을 말살하고 형식상으로만 남아 있던 우리 나라의 국가실체를 영원히 없애버리기 위하여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였다.

《한일합병조약》은 아무런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한 사기문서, 협잡문서였다.

일제는 국제법적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군사적위협과 강제방법으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냈다.

일제는 《합병》을 전후한 시기 일어날수 있는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철저히 진압하며 조선봉건왕조관리들을 군사적으로 굴복시켜 《조약》을 순조롭게 단행할 목적밑에 1910년 5월말부터 7월초까지 2 600여명의 칩락군을 한성일대에 집결시켰다.

특히 고종이 거처하고있던 덕수궁과 순종황제가 있던 창덕궁에 많은 칩락무력을 들이밀어 포위하고 황실로 드나들던 관리들을 통제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조선봉건왕조를 총칼로 위협하여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냈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한일합병조약》은 국제조약상의 체결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날조품이었다.

이 《조약》은 국제조약체결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국가원수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전권위임장도 없이 《체결》된 허위문서, 비법문서였다.

일제는 《조약》을 날조한 다음 조선인민의 반항이 두려워 그것을 즉시 발표하지 못하고있다가 한주일후인 8월 29일에야 공포하였다.

일제의 이 특대죄악에 대해 1926년 4월 순종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궁내대신 조정구에 계 자기는 《합병조약》에 절대로 비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겨 일제의 강압적인 행위를 폭로하였다.

이렇게 국권을 강탈하고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강점기간 100여만명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으며 840만여명의 청장년들을 강제로 낫설은 이국땅에 끌어가 노예로동을 강요하고 총알받이로 내몰았으며 20만명의 조선여성들을 강제런행, 랍치, 유괴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들었다.

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의 귀중한 력사문화재들과 자연부원을 마구 파괴략탈하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무참히 짓밟았으며 지어 조선사람의 말과 글, 성과 이름까지 빼앗으려고 미쳐날뛰었다.

일제가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기간 저지른 만행들을 꼽자면 끝이 없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특대형반인륜적범죄에 대하여 사죄, 배상할 대신 그 모

든것을 한사코 부정, 외곡할뿐 아니라 또다시 재침의 길에 뛰어들려 하고있다.

현시기 일본은 그 누구의 《위협》을 계속 떠들며 그것을 구실로 군사대국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일본은 룡상《자위대》의 군사작전지휘를 총괄하는 《 룡상총대》를 조직하고 《일본판해병대》로 불리우는 《수륙기동단》을 내온데 이어 그를 동원한 《섬탈환훈련》이라는것까지 감행하였다. 한편 최신형공격용 잠수함 《세이류》호와 소해함 《히라도》호의 취역식을 련이어 벌려놓고 미국으로부터 42대분의 《F-35A》전투기부품들을 들여와 최종조립을 다그치는 등 《자위대》를 공격형무기로 장비시키고있다.

그런가 하면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일본을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 하고있다. 일본수상은 《드디어 우리가 헌법개정에 달라붙을 때는 왔다.》고 자기의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였다.

이것은 일본의 재침야망이 얼마나 골수에 들어찼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오늘 조선인민과 아시아나라들은 칩략력사를 외곡하고 일본땅에 군국주의바람을 몰아오는 일본의 위험한 재침책동에 각성을 높이고있다.

일본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길로 계속 나가려 하다가는 수치스러운 중국적패망의 맛을 보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권정남

조선의 관광

불꽃바다, 웃음바다

신비로운 빛으로 한껏 채색된 인민의 문화휴식터 개선청년공원유희장.

모란봉기슭에 자리잡은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서는 매일밤 웃음과 젊음이 샘솟고있습니다. 만경창과를 헤가르듯 한 배그네와 하늘과 땅이 한데 어울려 돌아가는듯 급속도로 회전하

는 3중회전반, 관성비행차에서는 손님들이 끊임줄 모릅니다.

거대한 로켓트마냥 손살같이 하늘로 올라가 평양의 경치를 부감할수 있는 급강하탑은 청년들을 한순간에 단골손님들로 만들어놓고있습니다.

이뿐아니라 전자오락관이며 편의봉사시설들도 있어 손님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 있습니다.

불꽃바다, 웃음바다를 펼치는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 한번 들어서면 밤길도둑 떠나기가 힘듭니다.





염분진바다가에서 본사기자 김성철

췌- 처절췌,
유정한 파도소리에 화답이라도 하려는듯 조선동해기슭의 염분진을
찾은 동포들속에서는 줄곧 탄성이 쏟아져나온다.
그리고는 염분진의 경치에 반하여 저저마다 어깨 들췌 춤을 춘다.